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www.igbma.or.kr

2014 Summer Vol.53

경북의사회보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2014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2014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종주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로도 회비납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사회
- 카드결제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 클릭(화면 우측 배너) → 해당금액 결재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1) 만70세이상 회원(1944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 회원' 250,000원, '나 회원' 125,000원 납부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5)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501,000원 징수
  (만65세이상 회원 : 1944년 5월 1일 ~ 1949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행정사항
  – 투쟁성금을 기 납부한 회원은 개원 · 근무회원 2만원, 전공의 · 공보의 회원 1만원 면제

회비내역

- 회계기간 : 2014. 4. 1 ~ 2015. 3. 31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51,000	251,000	145,000	116,000	145,000	연회비 · 의협신문구독료 연구소 · 종합학술대회비 한방대책 · 투쟁특별회비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80,000	501,000	376,000	220,000	116,000	145,000	

발간등록번호
GBMA-2014-3-6

경북의사회보

2014 Summer Vol.53

Contents

04 **특별기고**
긴밀히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 추무진

05 **특집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내용 및 결과
후 기 _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 정능수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캄보디아에서… · 장유석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 장재혁
누가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은 것 · 김우석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염도섭
56명의 뜨거웠던 마음, 아름답고도 따뜻했던 캄보디아 의료봉사 · 고영이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의료봉사단의 나눔 그리고 행복… · 안영희
두 손 모아 "어쿤" · 박경숙
의사가 되어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한다 · 안중환
두 나라가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좋은 친구로 남게 되길… · 커소피(최혜진)

45 **포토뉴스**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49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50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51 **회무소식**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추무진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

55 **회무단신**

58 **회원동정 · 의료기관 개원현황**

59 **분회 및 병원소식**

62 **의학 및 건강칼럼**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대하여 · 편집위원회

64 **시사칼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선을 다해 임무완수 하겠습니다 · 김석곤

66 **회원문예**
수 필 _ 쉼터 그늘에서 · 박송훈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4. 4. 7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4. 9. 30	제53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4. 4. 27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2014. 10. 5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2014. 5. 12	제52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4. 10. 19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4. 5. 17~18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4. 11	제54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4. 11. 30	대구 · 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4. 5	2014년도 회원정기신고	2014.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4. 6. 27~29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2015. 1	제55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4. 7. 22~27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5. 2	2014년도 전체이사회
2014. 9. 20~21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5. 3	2014년도 회무감사
2014. 9. 28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5. 3	본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긴밀히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추 무 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70년 이상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시고, 3천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휴먼네트워크인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입니다.

경북의사회 회무와 지역의사회 의료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경북의사회보 발행을 축하드리며, 회보뿐 아니라 다양한 학술대회와 행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하나됨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계신 정능수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제2회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공헌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의사협회, 국민에게는 건강한 삶, 의사에게는 행복한 진료를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8대 집행부가 출범된 이후 빠르게 회무를 안정시키고, 화합의 모습을 보이고자 직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공석인 상임이사를 새로 영입하고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고자 각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듣고 회무에 반영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입법을 전제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완강히 거부하며 정부의 단독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비대위에 투쟁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조직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로 국회의장, 보건복지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 헌정회 등 전 · 현직 의원을 두루 만나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대국회 · 대국민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메디텔내 의원 임대가 가능하도록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보건의료 5개 단체와 공동주최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계속해서 대국회, 대국민 활동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의료계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역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 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우리협회의 위상을 재확립하고자 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의협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관개정을 통한 변화를 원하고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 · 내외적으로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각 직역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계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00만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경상북도의사회 여러분들께서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의 강한 의사회, 강한 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봉사 전개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의료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된 지역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01

02

03

04

01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02 김관용 경북지사의 축사
03 정능수 본회 회장의 인사
04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의 경과보고

05

06

07

08

05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
06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
07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권오흥 총재의 의료기기 후원금 전달
08 경북적십자사 강보영 회장의 후원금 전달

01 대구은행에서 협찬한 T-셔츠를 입고 즐거워하는 주민들

02 해외의료봉사단원들의 진료장면

01 치과 진료(안영두 · 황화섭 · 염도섭 회원)
02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 환자들
03 약국의 업무를 도와 주고 있는 가족들
04 약국의 의약품 조제

05 의대 및 간호과 학생들을 위한 특강(좌부터 정능수 회장, 커소피 씨, 김재왕 · 김우석 · 정태균 회원, 고순희 간호사 회장, 통역을 하고 있는 마오데니 씨)

06 환영리셉션 행사장 전경과 기념촬영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두 번째 해외의료봉사

현지 주민 2,850명 진료와 의학교육 등 전개

본회는 의료수준이 비교적 낙후된 해외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한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7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프놈펜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내과 · 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영상의학과 · 치과 등 8개 진료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해 현지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첫날인 7월 22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과 의료봉사단 장유석 단장을 비롯한 해외의료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세계속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경상북도의 뚝심과 위상을 보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에는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경북지방경찰청 권기선 청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권오흥 총재,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강보영 회장, 도내 보건의료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하였으며, 의료봉사단 장유석 단장의 경과보고, 본회 정능수 회장의 인사말,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에게 친정방문 항공권 전달,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 의료봉사단은 이튿날인 7월 23일(수)부터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진료인력 25명과 행정지원인력 31명 등 56명의 봉사단원과 캄보디아 현지 통역 및 지원인력 42명 등 총 98명이 한 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현지주민과 한국교민의 아픈곳을 어루만졌으며, 기본진료를 비롯한 외과수술 7건, TPI(통증유발점주사)시술 110건과 위내시경검사 16건, 영상초음파검사, X-ray검사 등 연인원 환자 2,850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결혼이민 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으로 상주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 여성 커소피(28세, 2007년도 이주)씨와 경산시 거주 마오데니(35세, 2006년도 이주)씨가 동행하여 친정방문과 함께 봉사단의 통역과 안내 업무를 전담하였다.

의료봉사외에도 왕립군의과학연구소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정능수 회장은 '한국의료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특강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료를 알리는 의료관광 소개를, 김재왕 부회장은 '개발도상국가의 새로운 난제-당뇨병(내과)'과 김우석 원장은 '개원가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외과수술(항문질환과 하지정맥류)', 정태균 원장은 '흉부 단순촬영 판독법(영상의학과)', 고순희 간호사회장은 '대한민국의 간호 역사' 등의 연제로 양일간 강의가 진행되어 한국의 선진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왕립군의과학연구소와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MOU 체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연수받기 위해 캄보디아 내과 의사인 키 왓타낙씨가 7월 27일(일) 봉사단 귀국시에 함께 입국하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교육을 진행하여 캄보디아로 돌아가서는 자국민에게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금번 해외의료봉사활동에는 진료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멸균소독제, 각종 의약품 등을 전달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권오흥 총재가 의료기기 기증 후원금으로 300만원,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강보영 회장이 금일봉을 전달해 왔으며, 본회는 심전도기 1대와 이비인후과 유니트 부속기기 일체, 돋보기 400개, X-Ray필름 400매와 카세트 7종, 응급분만셋트 2개, 치약 및 칫솔 560개, 수술복 30개, 의료소모품, 볼펜 200개, 형광펜 200개를, 41개 제약회사에서 내복약 · 피부연고 · 안과약품 · 주사제 · 수액 등 의약품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에서 치약 및 칫솔 500개, 경상북도간호사회에서 손톱깍기 200개, 포항시치과의사회에서 치약 · 칫솔 · 치실 셋트 300개, 대구은행에서 반팔 티셔츠 400매와 색연필 200개, 한국감염관리본부에서 멸균소독약 및 모기기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에서 1회용 반창고 1,000개 등 본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총 6,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캄보디아에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진료시에 필립스초음파회사에서 초음파기기 1대를 지원했고, 이재흠 원장이 위내시경검사기기 일체를 가져와 세밀한 검사를 통한 의료봉사가 진행되었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한국전쟁당시 맥아더장군이 우리나라를 빗대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되기까지는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으나 반세기만인 2014년 기준 1인당 GDP가 2만4천 달러를 돌파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로 성장했으며, 원조를 받던 국가(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공여국)로 전

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새마을 정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으며,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우리가 항상 접하기에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는 아주 큰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에겐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들에겐 아픈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큰 행복의 날들이 될 것이며, 거창하거나 떠들썩하기 보다는 진정 캄보디아 국민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살피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 진정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이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능수 회장은 금번 의료봉사를 위해 많은 후원을 해주신 분들과 해외의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봉사단원에게 진심어린 고마움과 감사를 표했다.

해외의료봉사 성과보고와 소회발표시간 가져

– 2014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 개최 –

지난 7월 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봉사단원에게 증서전달과 소회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이 지난 8월 23일(토) 오후 6시, 범어세인트웨스튼호텔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과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치과의사회 안영두 · 박태원 부회장,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 약사회 한형국 회장과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 함께한 의료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단식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BTV(바이온TV)와 안동 MBC '전국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해외의료봉사 활동상을 상영하여 그 때의 진료활동을 다시금 되새겼으며, 금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여 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친데 대해 봉사단원 전원에게 증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그간의 진행경과보고와 해외의료봉사 활동의 경비를 정산보고 하였으며, 향후 의료봉사에서는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필요한 진료과목의 의료진을 보강하는 것과 의사소통문제, 구호물품 배부, 물품 운반 문제 등 금번 의료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의료봉사단원들의 소회발표시간에서 향후 의료봉사시에는 캄보디아 현지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짧은 봉사일정을 늘리는 방안, 진료 환자의 후속대책 문제, 직능단체와의 협조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가 되어 의료봉사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자고 하였다.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 보고서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수준이 비교적 낙후된 해외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한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Ⅰ 캄보디아(Cambodia) 기본 개요

| 캄보디아 일반정보 |

- 정식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국왕과 수상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
- 위　　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
- 종족구성 : 크메르족(90%), 베트남인(5%), 중국인(1%), 기타(4%) / 크메르어(공용어)
- 종　　교 : 불교(96.4%), 이슬람교(2.1%), 기타(1.5%)
- 인　　구 : 14,952,665명(2012년)
- 기　　후 : 고온다습(연평균 : 27℃)
- 시　　차 : 한국 오전 9시, 캄보디아 오전 7시

| 캄보디아의 역사 |

- 공산혁명지도자 폴 포트가 크메르루주를 이끌고 1975~1979년까지 "킬링필드"학살로 3년 7개월간 인구 600만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명 희생, 대부분 중산층과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전문직 처형

| 빈곤문제 |

- UN은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비율이 2007년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25%, 2015년에는 19.5%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

| 재정문제 |

- 동남아 국가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2014년 국가 예산 35억 6천만불

| 주요경제지표(2013년 기준) |

- GDP : US$ 156.42억(1인당 GDP : US$ 1,015.284)
- 경제성장률 : 6.5%
- 산업구조 : 서비스(41%), 농업(34.7%), 산업(24.3%)

| 의료시설 |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공공병원)과 민간 의료기관(민간병원, 국제 비정부기관 운영기관)으로 구분
- 국립병원은 프놈펜에 8곳, 상대적으로 전문화됨
- 의료상담은 45%는 개인 약국에서 이루어짐
- 의료서비스 고용인구는 의사 2,300명 포함 18,000명
-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는 6,100명

Ⅱ 해외의료봉사 활동목적 및 경과보고

| 봉사목적 및 배경 |

–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의료봉사 진행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으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경상북도 뚝심과 위상'을 보임.
–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전개

| 주요경과보고 |

– 2012. 4. 1 제42대 집행부 출범 역점 추진사업
– 2012. 6. 14 제3차 상임이사회서 의료봉사단장 선임
– 2012. 9. 2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 제1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 2013. 7. 23~28 제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전개
– 2013. 9. 8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 2014. 2~7 제2회 해외의료봉사 준비회의(6회)
– 2014. 6~7 제2회 해외의료봉사 전체 의료진회의(2회)
– 2014. 7. 22~27 제2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전개
– 2014. 8. 23 제2회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

| 슬로건 |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봉사단 명칭 |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

Ⅲ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개요

| 봉사일정 |

– 일 시 : 2014. 7. 22(화) ~ 7. 27(일) / 4박 6일
– 장 소 : 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
Health science institute of R.C.A.F
(Royal cambodian army forces)

| 의료봉사단 참여자(56명) |

– 의료인력 25명
1) 의과 13명(내과 2명, 외과 6명, 정형외과 1명, 신경외과 1명, 소아청소년과 1명, 안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2) 치과 3명, 약사 2명, 간호사 7명
– 지원인력 29명 : 행정 3명, 통역(결혼이민여성) 2명, 가족 24명
– 언론보도 2명 : 안동MBC PD 및 카메라감독(취재진)

| 캄보디아 현지 참여자(42명) |

– 의료지원 및 통역 40명(왕립군의과학연구소 12명, IMHA 15명, 왕립의대 학생 6명, 선교사 7명)
– 현지진행 : 2명(업무지원)

Ⅳ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업무분장

| 경상북도의사회 |

–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단체로 의료봉사단 운영
– 의료봉사활동의 진료에 관한 일정 및 세부사항 수립
– 의료봉사단 인적구성 및 의약품, 진료물품 등 준비
– 캄보디아와의 교류 확대 및 양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역할
– 캄보디아 현지 담당자와 연락 체계 확보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 보고서 발간, 봉사활동 개선사항 점검 등

| 의료봉사단장 |

– 의료봉사단의 보건, 의료활동 전반 관리 지원
– 의료봉사단원이 최선의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의료봉사단 사기 진작 및 화합의 분위기 조성
– 의료봉사단원 통솔, 비상사태시 결정사항 수행 등

| 진료팀 |

– 각 진료과별 환자 분류
– 진료와 수술, 처치, 처방 담당
– 진료기록의 작성(차트)

| 간호팀 |

– 진료와 수술시 의료진과 직간접 협조
– 의료장비 세척 등 점검 및 보충
– 현지 진료 활동의 안내와 환자에게 도움
– 현지 자원봉사자와 협력

| 약제팀 |

–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 의약품 공급 및 관리, 재고량 파악
– 의약품 투약, 처방의 확인 설명
– 현지주민들에게 구호품 배부

| 행정지원팀 |

–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의료진 등을 지원
– 물품 및 일정 확인, 이동차량 확보, 식사, 통신수단 유지
– 현지 업무 비용 관리 및 정산
– 데이터 정보 관리 지원, 기록 및 촬영
– 의료봉사단장, 진료팀, 간호팀, 약제팀 등과 협력, 자원봉사자, 통역 담당자 관리
– 의약품 및 약속처방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환자 접수 및 관리(환자 인적사항 기입), 구호품 배부 등

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현황(결과)

| 활동목적 및 내용 |

– 캄보디아 프놈펜 의료소외 지역의 실질적 의료 제공
– 현지 보건당국과 지속적 업무 협의로 지속 사업 전개
– 주민들의 의료지원 및 영양 부족 소아 영양제 지원 등

|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

– 일　정 : 2014. 7. 22(화) 10:00~10:50, 경상북도청
– 참석내빈
1) 봉사단원 : 정능수 회장,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의료봉사단원 등 50여명
2) 경상북도 : 김관용 지사, 권기선 경찰청장,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이원경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식품의약과장 등
3) 보건단체 : 반용석 치과의사회장, 고순희 간호사회장, 강미경 심평원대구지원장
4) 본회내빈 :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포항의료원장), 김종서 대구의사회장, 강보영 적십자사회장, 이동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권오흥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총재
– 주요내용 : 개회식, 경과보고, 회장인사, 격려사, 퍼포먼스(결혼이민여성 친정국가방문 항공권 전달), 기념촬영 등

| 해외의료봉사활동 내용 |

1)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의학교육

일　시	연　자	연　제
7/23(수)	정능수 회　장	• 한국의료의 어제와 오늘
	김재왕 부회장	• 개발도상국가의 새로운 난제-당뇨병
7/24(목)	김우석 원　장	• 개원가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외과수술(항문질환과 하지정맥류)
	정태균 원　장	• 흉부 단순촬영 판독법
	고순희 원　장	• 대한민국의 간호 역사

2)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기증

– HSI of RAFC에 심전도기 1대, 이비인후과 장비 부속기기 일체, 돋보기 400개, X-Ray필름 400매와 카세트 7종, 응급분만셋트 2개, 수술복 30개, 의료소모품, 내복약 · 피부연고 · 안과약품 · 주사제 · 수액 등 의약품기증

3)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학분야 연수교육 진행

– 왕립군의과학연구소와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MOU 체결(2013. 7. 25)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내과 의사인 키 왓 타낙씨가 봉사단 귀국시 함께 입국
–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2015. 1. 28)

4) 의료소외 지역의 실질적 의료 제공을 위한 환자진료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영상의학과, 치과(8개 진료과목)
– 검사수술 : 위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외과적 수술 등
– 진료인원(결과)

구　분	인원수(%)
진료과별 진료 환자수	2,850명(100)
내과	862명(30.2)
외과(정형 · 신경)	854명(30.0)
소아청소년과	218명(7.6)
안과	506명(17.8)
영상의학과	140명(4.9)
치과	270명(9.5)
외래 환자수	1,236명(100)
7/23(수)	503명(40.7)
7/24(목)	733명(59.3)
성　별	1,236명(100)
남	528명(42.7)
여	708명(57.3)
연령(세)	1,236명(100)
9 이하	95명(7.7)
10-19	75명(6.1)
20-29	228명(18.4)
30-39	151명(12.2)
40-49	154명(12.5)
50-59	216명(17.5)
60-69	195명(15.8)
70-79	107명(8.7)
80 이상	15명(1.2)
각종검사 및 수술	
위내시경검사	16건
외과수술	7건
통증유발점주사(TPI)	110건
치아발치	60건

5)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

–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
– 경상북도 다문화행복과를 통해 2명 추천
– 담당업무 : 해외의료봉사단 진료, 의학교육 통역 등
–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 선발
① 커소피 씨(최혜진, 28세, 2007년도 이주),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마오데니 씨(박소희, 35세, 2006년도 이주),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Ⅵ 캄보디아 주요 내빈 방문 및 간담회

| HSI of RAFC(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 |

– GENERAL, LUN SOKHON (Director of HSI Lieutenant)
– GENERAL, NIM MEALEA (Deputy director of HSI Major)
– GENERAL, NGETH SOUN (Deputy director of HSI Brigade)
– GENERAL, KEM KHATTERY (Deputy director of HSI Brigade)
– COL, MAO HENG (Deputy of technical Department of HSI)
– COL, SAO SEA (Deputy of technical Department of HSI)
– COL, YOURS SAMBO (Deputy director hospital of HSI)

| IMHA(International Medical Humanity Association) |

– Lieutenant GENERAL, SOK MONY
(Honorable President of IMHA)
– Lok Chum Teav, KHIEV KUNTHY
(Chief of GENERAL relation of IMHA)
– Dr, THONG KHIM (President of IMHA)
– Dr, MAO HENG (Vice-President of IMHA)
– Assistant Medical, MAN CHAMROEUN (Advisor of IMHA)

| H.E MP Mr. SUOS YARA |

(Member of Parliament and Vice Chairman of Committee for Foreign Affai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Ⅶ 해외의료봉사 기대효과

- 300만 경북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 수행
- 해외의료봉사의 know how 축적
- 보건의료단체 위상 강화 및 해외의료봉사 참여 확대
- 선진의료기술 전달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 마련

Ⅷ 해외의료봉사 주요 협찬 내용

- **경상북도의사회 :** ECG 장비 1대와 ENT 유니트 부속기기일체(300만원) X-Ray필름 400매(30만원) 및 카세트 7종, 응급분만셋트 2개(30만원), 돋보기 400개(100만원), 치약 및 칫솔 560개(56만원), 수술복 30개(90만원), 의료소모품(100만원), 볼펜 200개(10만원), 형광펜 200개(40만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총재 권오흥)** : 의료기기 후원금 300만원
-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회장 강보영)** : 후원금 50만원
- **41개 제약회사** : 내복약 · 피부연고 · 안과약품 · 주사제 · 수액 의약품(4,200만원)
-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반용석)** : 치약 · 칫솔 500개(50만원)
-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고순희)** : 손톱깍기 200개(60만원)
- **포항시치과의사회(회장 이동수)** : 치약 · 칫솔 · 치실 셋트 300개(60만원)
-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 : 반팔 티셔츠 400매(800만원), 색연필 200개(60만원)
- **한국감염관리본부(영남지부장 구자용)** : 멸균소독약 및 모기기피제(60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지원장 강미경)** : 1회용 반창고 1,000개(50만원)
- **필립스초음파** : 초음파기기 1대
- **이재흠 원장** : 위내시경검사기기 일체

※ **캄보디아에 총 6,100여 만원 상당 지원**

Ⅸ 해외의료봉사 참가자(56명)

- **외과** : 정능수, 장유석, 이재흠(윤희순, 이주호), 백현우(백봉운), 문상웅(박창미, 문준일), 김우석(김태현)
- **내과** : 김재왕, 황석순(황동준, 황서영)
- **정형외과** : 장재혁(문은주, 장용희, 장용준)
- **신경외과** : 손성근
- **소아청소년과** : 이순영(박상준, 박수완, 박세익)
- **안과** : 이상민(이창희, 이준희)
- **영상의학과** : 정태균(정인영)
- **치과** : 안영두(안중택, 안중환), 황화섭(황채린, 황수아, 황시내, 황혜선), 염도섭(염민성)
- **간호사** : 고순희, 윤난숙, 고영이, 배분희, 안영희, 박경숙, 임홍아
- **약사** : 이필재, 권명화
- **행정** : 박재영, 김두중, 권순길
- **영상촬영** : 태숙혜, 최종태
- **통역** : 커소피(최혜진), 마오데니(박소희)

X 진료 흐름도

① 환자대기 → ② 접 수 → ③ V/S 체크

↓

④ 예진 · 분류

↓

⑤ 진료과별 외래 진료

[H동 1층]	[H동 2층]
외과 · 정형 · 신경외과(수술실), 안과, 치과, 영상의학과	내과(위내시경검사 · 수액주사실), 소아청소년과

↓

⑥ 약국(조제) → ⑦ 귀 가

XI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진행 로드맵

월 / 주 /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후원기금모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 비 회 의		■					■					■				■					■							■							
전 체 회 의																							■				■							
봉사단원접수				■	■	■	■	■	■	■	■	■	■	■	■																			
여 행 사 준 비									■	■	■	■																						
의 약 품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의료봉사																												■						
평 가 회 의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8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교통방송(FM라디오 103.5) '스튜디오 1035 초대석'에 본회 정능수 회장이 출연하여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전개 등에 대한 인터뷰 방송 내용을 간추려서 싣습니다.
〈편집자 주〉

정 능 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동산연합의원(의성)

우리지역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과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035 초대석에는 300만 경북도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사회, 만나봅니다. 정능수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Q1. 지난달에 캄보디아로 해외의료봉사 다녀오셨죠? 별 일 없이 잘 하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상북도의사회장 정능수입니다. 먼저 경북교통방송 가족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의료수준이 낙후된 캄보디아에 위치한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의료봉사단 전원이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Q2.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나요?

의사 13분, 치과의사 3분, 약사 2분, 간호사 7분 등 각 분야별 전문 진료인력 25분과 행정 및 지원인력 31명 등 총 56명의 봉사단원이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현지주민을 진료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을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과별 진료 총환자수 2,8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둘째,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지구상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다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뜻으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전개했습니다. 왕립군의과학연구소내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우수한 한국의료를 소개하는 강의로 선진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셋째, 캄보디아 의사인 키 왓타낙씨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학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7월 27일(일) 입국하여 향후 6개월간 연수교육을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가 자국민에게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심전도기(ECG)와 이비인후과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를 기증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다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뜻으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전개했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로 결혼해 이주해 오신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상주에 거주하는 커소피(최혜진)씨와 경산에 거주하는 마오데니(박소희)씨 2명이 의료봉사단과 동행하여 친정방문도 하면서 봉사단의 통역 업무를 도와 주셨습니다.

Q3. 짧은 기간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요.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내과 환자중에 특별한 환자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식사후에 갑자기 배가 아픈 환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배가 아픈것과는 양상이 달라 혈당을 측정해보니 수치가 600정도 나왔습니다. 당뇨합병증 중에 장으로 가는 장관막 혈류장애로 인한 복통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심장혈류장애가 있을 때 흉통이 오는 협심증 증세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간 노말셀라인(normal saline : 생리식염수) 수액제 등으로 응급처치 후 호전되어 혈당이 400으로 내려와 복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아브도미날 안자이나(abdominal angina)' 환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혈당이 왜 갑자기 올라갔던 건가요?〉

당뇨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가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 등에서는 마른사람한테도 당뇨병이 많은데요. 이것은 근육 속에 있는 인슐린의 저장량이 적고 그 분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모노사카라이드(monosaccharide : 단당류)' 계통의 단음식을 많이 섭취하기에 당뇨가 한국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당뇨병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4. 해외의료봉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경상북도에는 많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살고 있는데 이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친정국가를 방문하여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하듯이 사랑의 인술로 내 가족 같이 진료 하겠다'는 뜻에서 의료봉사를 기획하게 되었구요. 특히 동남아 국가 중 캄보디아는 의료가 상당히 취약하고,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경상북도 내에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경상북도와는 2006년도에 앙코르왓트-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인연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의료봉사를 전개하는 데는 경북도내 5개 보건단체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구요. 특히 2012년부터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경상북도의사회 골프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의사회원들께서 봉사기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Q5. 경북의사회는 언제 조직됐고,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경상북도의사회가 처음 발족한 것은 일제치하인 1943년 10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의사 8분과 일본인 의사 9명이 모여 의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해방후 1946년 6월 5일 경상북도의사회가 다시 창립되어 이때부터 경상북도의사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에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된 후 현재 10시 13군 의사회로 조직되어 있고 3,140여 명의 의사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6. 회원수가 3천여 명이나 되면 사업이나 모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료봉사 외에 알리고 싶은 행사나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2014년도에 경상북도의사회는 14개의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중입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과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5회째 주인공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월에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춘 · 추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지역의사회와 함께 불우시설에 필요한

물품과 각종 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의사회와 함께 포항모자원에서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주시의사회와는 경주대자원에서, 안동시의사회와는 안나의 집에서, 경산시의사회와는 샤론의집에서, 상주시의사회와는 종합복지관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과진료용 검안경과 이비인후과 진료용 유니트를 기증하였으며,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에 유일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회공헌활동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한 경상북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 경북의사회와 대구 · 경북적십자사 및 KBS 대구총국이 '다문화가족 및 해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북의사회와 매년 영호남친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제29회 행사는 9월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Q7.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의료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특히 원격의료사업의 경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원격진료는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방법과는 다른 진료방법인데요. 환자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의 유출 등 사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입법발의 되어 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료행위는 인체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면진료에서 문진, 청진, 타진, 촉진, 시진 등 오감을 다 동원해도 오진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원격진료를 할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자연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환자에게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의사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Q8. 심각한 병에 걸리면 서울로, 중앙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도내 외부 환자 유출률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1월 6일 발표한 '2012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타지역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은 50%보다 많은 61.2%에 달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 유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7.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경북 17.6%입니다. 경북은 2011년보다 1%포인트의 환자가 더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

어 빅5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기술이 있음에도 최근 KTX, 고속도로망 등 편리해진 교통 등 반나절 생활권으로 외부유출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9.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동네의원이나 지역병원, 그리고 의료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1차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 그리고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원격의료는 이에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은 콜센터를 두고 전국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인데 의료시스템에 있어 의료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1차는 동네의원, 2차는 중소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인데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료의 정확성보다는 편리성을 우선시하는 국민의 수요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 자신도 끔찍하기만 하며,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 의료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도 소도시와 군지역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는 현실인데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줄어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소도시지역 의료인들이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면 소도시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나운서〉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진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동네 슈퍼가 없어지면 그저 불편해지지만 지역 의료, 지역 병원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Q10. 현재 의성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대도시에서 개원하지 않고 의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의 선친께서 고향인 의성에서 약 10년간 개원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간경변증 합병증으로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남으로 선친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고향인 의성에서 제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것을 고향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과 전문의인 제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 고향인 의성에서 집사람은 1985년부터, 저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근 25년~30년간 지역주민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Q11. 의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친인척 중 의사가 대단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제 주위에 친인척 의료인수가 40여 명이나 되는 환경속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농촌지역 의성에서 환자를 진료하시고 왕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장해서는 농촌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외과 의사, 외삼촌은 신경외과 의사인데 두 분이 시골에서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술을 베푸는 두분의 영향으로 저도 의사중에서도 특별히 외과의사가 되었던가 봅니다.

Q12.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서 환자의 질병을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하여 완치하는 모습이 보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환자 진료외에도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최근 법사랑위원으로 개칭)으로 활동하면서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와주었었는데 반듯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큰 일꾼이 되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보람이 있었구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 장애인 할머니가 집에 불이 나서 몸에 화상을 입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고 있을 때 무료 화상치료 및 자활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범죄예방 의성군협의회 의성지구회장을 맡아서 지역 범방위원들과 쓰러져 가던 헌 가옥을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통해 새터전을 마련해주었는데, 그 술중독에 빠진 집주인이 술도 끊고 착실한 생활을 하는 모습에 보람을 특별히 느꼈습니다.

〈아나운서〉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 캄보디아에서…

장 유 석 단장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장유석외과의원(경산)

출발

7월 22일 오후 7시 30분을 지나자 우리 봉사단 56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KE689편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지금 중국상공에서의 항공로가 복잡하여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봉사단의 짐꾸러미가 너무 많아 기내에 들고갔던 가방중에 일부가 선반에 수납이 불가하여 다시 비행기 화물칸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륙이 많이 지연되고 있던 참이었다. 출발이 예정보다 1시간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도청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오후 4시 넘어 인천 공항에 도착한지라 약간의 피로감도 느낄법도 하지만 '올해도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쳐야 될텐데' 라는 마음이 앞서 서둘러 짐을 부치는 등 출국준비에 바빴다.

짐 몇개가 통관에 문제되어 검색사무실로 호출되어 끈을 다 풀고 다시 포장하는 우여곡절 끝에 기내 좌석에 앉으니 비로소 출발하는구나 느낌이 왔다.

사실 올해 봉사활동을 연초에 기획하면서 작년과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지난해의 경험이 이번 봉사단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더욱 빈틈없이 준비 할 수 있었다.

또 진료와 더불어 지식을 전해주는 강의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하였고 이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서 향후에 더욱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영상기록물도 남기기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였다.

중형비행기가 몇번 흔들리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낫다 싶어 좌석을 뒤로 하니 곧 꿈속으로…

"곧 비행기가 프놈펜국제공항에 착륙예정이므로 좌석벨트를 착용하시고…" 라는 안내방송이 귓전에 들려옴에 따라 시계를 보니 도착시간이 예정보다 그리 늦지 않았다. 기장이 비행기를 과속(?)으로 몰았나 하며 가방을 챙기고 입국 준비를 하였다.

마중 나온 속모니 내무차관 일행과 회장님이 잠시 환담 중, 약품이 통관 안된다는 긴급연락이 와서 일순간 당황하였으나 마오교수가 중재에 나서서 겨우 해결한 후 호텔로 향하였다. 항상 약품통관이 말썽이다.

다소 피곤한 몸을 아늑한 침대에 뉘여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봉사 첫째날

눈을 뜨니 프놈펜의 아침은 어쩌면 익숙한 듯 그리 낯설지 않았다. 거리의 오토바이, 툭툭이 일행을 눈에 담으며 왕립군의과학연구소로 향하는 도로는 지난해보다 비교적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거리도 약간 정돈된 듯한 느낌이었다. 다만 차량들의 주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역주행, 가로질러 가기는 변함이 없었다.

의과학연구소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학연구소에 도착하고서 회장님과 같이 론속혼 왕립군의과학연구소장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작년과 달리 각 과별로 배정된 단원들은 신속히 장비를 설치하고, 이어서 별도 사전점검 없이 곧 진료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참여한 단원들의 경험은 진가를 발휘하였다. 큰 무리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특히 함께한 가족 단원들의 활약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전시간은 200여 명의 환자를 돌보는 동안 눈 깜짝 할 사이 지나갔다. 꿀맛 같은 점심을 즐긴 후 휴식도 잠시, 온 몸의 땀을 말릴 틈도 없이 진료는 다시 시작 되었다.

접수팀은 고순희 간호사회장님 통솔하에 무더위와 싸우면서 현지에서 파견된 선교사들과 조금이라도 빠른 진료를 위하여 환자들 차트 작성에 여념이 없었고, 바이탈 기록 및 예진팀은 문상웅이사, 백현우원장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에 둘러쌓여 비지땀을 흘렸다.

내과팀은 우리 경북에서 명의로 소문난 김재왕, 황석순, 이재흠 원장께서 이곳에서는 시술받기 힘든 내시경검사를 바로 시행했으며, 영상의학 명의인 정태균 원장이 즉석에서 제공하는 초음파 결과와, 우리 봉사단이 기증한 필름과 카세트를 이용한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더욱 세밀한 진료가 이루어 졌다.

특히 혈당이 600mg%이상으로 체크된 환자는 긴급 수액투여를 통하여 안정을 되찾아 진료팀이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외과팀(외과, 정형, 신경외과 연합)은 김우석, 장재혁, 손성균 원장이 각종 연부조직 종양수술과 TPI를 통한 통증치료에 용하다는 소문에 환자들이 몰렸다.

이마에 큰 지방종을 가지고 지내던 환자가 덩어리 제거수술을 통하여 예쁜 외모를 되찾아 미소 지으며 연신 어꾼(감사하다의 캄보디아어)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여는 행복한 세상"의 이번 봉사단 슬로건이 떠올려 졌다.

안과팀은 이상민 원장이 세상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돋보기 안경을 제공한다는 소문에 줄을 이었으며, 특히 다른과 진료 후 약까지 탄 후에 돋보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치과팀은 안영두, 황화섭, 염도섭 원장이 발치 · 치주질환 · 풍치치료를 우리 봉사단이 작년에 기증한 치과체

어에서 환자들을 원활하게 치료함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인기 진료과로 환자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소아청소년과팀은 이순영원장이 진료를 하랴, 아기 어머니들과 통역하랴 바쁘게 진찰이 이어졌다.

약국은 이필재, 권명화 약국장이 가족도우미와 같이 이마의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조제하는데도 약타는 환자 줄이 줄기는 커녕 자꾸 길어지기만 하였다.

모든과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정성을 쏟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복도에는 대기환자가 여전히 넘쳐나고…

오후에는 회장님이 '대한민국 의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김재왕 부회장님의 '개발도상국의 난제 당뇨병'에 대해 현지 의과대학생과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나라의 의료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오후진료 마감시간을 훨씬 넘긴 가운데 기다리는 마지막 환자까지 진료를 마치고서야 내일진료를 약속하며 발길을 돌렸다. 저녁 프놈펜의 시민들 퇴근길은 오토바이 천국이었고 그 헤쳐 나가는 모습 또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다.

봉사 둘째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진료소에 도착해보니 대기텐트에는 벌써 만원 사례!

어쩌지 하면서도 오늘 진료도 물 흐르듯이 잘 되겠지 하는 바램이 앞섰다. 오늘은 속모니 장군가족 15명, 마오 교수가 데리고 온 환자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식당사장님의 가족들 등 VIP환자(?)들로 줄이 계속 이어져, 특히 접수차트 없이 그냥 왔기에 적지 않게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VIP환자를 평소에 많이 접해본 우리 진료팀은 캄보디아 VIP들을 능숙하게 치료도 잘 해주고 선물도 한아름 안김으로써 이들 모두로부터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방송사인 바이온TV에서 우리봉사단의 활약상을 알리고자 회장님과 인터뷰를 비롯하여 내과팀과 소감 등을 주고받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장면을 우리와 동행한 안동MBC에서 또 촬영하는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오전에 김우석 원장의 '치핵과 하지정맥류'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하지정맥류를 치료함으로써 예쁘진 다리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예상외로 컸음을 느꼈다. 이 나라 청년들의 미용성형 즉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만국공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통역 박소진씨는 정태균 원장과 고순희 간호사회장 특강에 가고 소청과 통역 커소피씨가 갑자기 회장님 인터뷰에 같이하는 바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통역이 안되어 올스톱 되었다는 긴급 SOS요청에 어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참 난감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때마침 각과 진료환자가 너무 지체되어 접수를 잠시 중단시키고 접수의 선교사님을 임시로 소청과에 통역으로 배치함으로써 비로소 진료에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인터뷰는 끝이 없고 오후 4시경 약속된 야라 소스 국회의원과 회장님의 면담시간은 다가오고 또 속이 타기 시작하였다. 서둘러 도착한 프놈펜 경북문화센타에서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 회장님은 야라 국회의원으로 부터 내년에 방문시 훈센총리와의 면담과 캄보디아의사 봉사팀과 공동으로 진료하는 공동위원장으로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는 바람에 내년에 정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우리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출정식까지 오셔서 격려해주신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여러 내빈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금번 활동을 잘 기록되도록 고생하신 안동MBC 취재팀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료봉사단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머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꼭 방문 해야되는 운명(?)이 되었다.

그런데 통역은 이렇게 전달하였다. 야라 의원에게 "Thank you for your offer" 라고.

면담을 서둘러 끝내고 다시 의과학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은 러시아워를 방불케 하여 복귀가 쉽지 않았다. 시간은 왜 이렇게도 빨리가는지 진료 마감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기다리는 환자들은 줄지 않고, 봉사단환송식이 왕립군의과학연구소측 주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또 다시 늦고 말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밀린 진료팀은 끝까지 진료하고, 일부단원들이 환송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2014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막을 내리기로 하였다.

귀국 하면서

우리단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진료한 1,236명의 환자(연인원 2,850명)들의 웃는 모습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받았으며 이것을 통하여 "의료소외지역의 의료봉사활동이 왜 필요한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에 왕립군의과학연구소와 경북의사회,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MOU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캄보디아 내과의사 키 와타낙 씨가 우리 봉사단과 함께 왔으며 6개월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연수예정이다.

금번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우리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출정식까지 오셔서 격려해주신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여러 내빈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품을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이 지면을 빌어 전합니다. 아울러 금번 활동을 잘 기록되도록 고생하신 안동MBC 취재팀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귀국전에 메콩강 유람선에서 본 캄보디아의 저녁풍광의 아름다움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녹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료봉사단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머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장 재 혁 원장
제일정형외과의원(경산)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있은 해외의료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경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는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타 보건단체 회원들도 참가하여 의료진(의과, 치과, 약사, 간호사) 및 행정지원인력, 봉사단원 가족들을 포함하여 모두 56명이 참여했다.

나 역시 대학시절 때 농촌봉사 활동에는 몇 차례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특별히 봉사에 큰 사명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북의사회 임원으로써 봉사준비를 같이하다 보니 의무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의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은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았다.

또한 가족에게는 의사로서 생활하는 모습과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며,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도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작년 의료봉사활동을 경험삼아 더욱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몇 차례 준비회의를 가졌으며 특히 마지막 의료진 전체준비회의에서 지난해 봉사활동의 동영상을 보면서 전반적인 활동 내용과 구체적인 할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졌다.

프놈펜 숙소에서 진료장소인 왕립군의과학연구소 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거리인데 차창 밖으로 비친 프놈펜 시내는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툭툭이,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으로 차량과 뒤섞이어 조금은 무질서한 느낌이었으며 접촉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또한 일본 차종인 렉서스와 도요타가 많았는데 수입관세가 많아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였다.

가이드 말로는 보통 직장인의 한 달 급여가 150$(달러) 내외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약 200$ 내외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차를 모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한지 짐작이 될 듯하다.

프놈펜 시내를 약간만 벗어나도 도로와 사회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했으며 최소한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환경정도로 되는데도 많은 시간과 자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쫌 리업 쑤어(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진료를 시작하면 환자들도

웃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쫌 리업 쑤어”라고 답례인사를 하였다. 진료시 통역이 제대로 안되어 진료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으며 더운 날씨와 함께 밀려오는 환자들로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접수와 예진을 통해서 먼저 개략적인 증상과 주 증상을 표시해놓아 예진을 참고하여 손짓, 몸짓으로 구체적인 증상을 파악하여 진료하였다.

외과 진료실이 약국 옆에 있어서 진료 대기환자들과 약을 타려는 사람들이 좁은 복도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이 있어 마음도 자연히 바빠지기도 하였다.

건물 바깥에는 대기 환자들이 계속 모여 들었으며 많은 환자들 속에서도 봉사단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각자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더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다짐도 하였다.

아마 경북의사회의 첫 번째 해외의료봉사 경험이 이번 의료봉사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외과 계통에서는 기본진료와 지방종 제거수술, TPI(통증유발점주사) 시술등을 하였으며, 근골격계, 관절염, 척추신경병증 질환과 함께 위장계통의 불편을 같이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다. 자외선 영향인지 실제 나이보다 많아보였으며 기다림에 지친기색도 없이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에 임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해본다. 물론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발전이 느리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학생이나 성인이나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바쁘게 생활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할 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느림의 미학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진료시 미리 준비해간 약속처방을 하면서 약 며칠 주는 것 외에는 물론 TPI(통증유발점주사) 시술등도 하였지만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잠시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으나, 1975~1979년 사이 크메르루즈 무장단체에 의한 킬링필드 대학살이후 살아남은 의료인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 의료현실이 많이 열악해서 약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곳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료진이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있

었으며 의료장비, 멸균소독제, 각종 의약품등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 곳 내과의사인 키 왓타낙씨가 동국대경주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일회성이 아닌 한국의 발전된 선진의료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캄보디아 의료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한 이번 일정은 다른 봉사단원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뜻 깊고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가족들도 비슷한 연령대가 많아 서로 잘 어울려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귀국하는 날 저녁에는 프놈펜 시내를 흐르는 메콩강의 일몰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과정과 며칠간의 캄보디아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으며, 선상에서의 삼겹살과 맥주 한잔은 지난 며칠간의 피로를 풀어주며 함께했던 좋은 인연을 더욱 단단히 맺어주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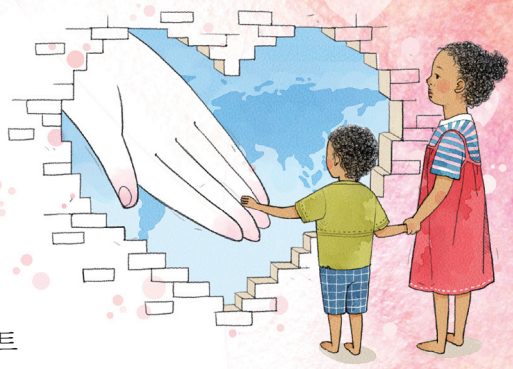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답사까지 갔다 오시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빈틈없이 완벽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준비해준 봉사단장님,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여 접수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료가 되도록 해주셨던 고순희 경북간호사회 회장님, 제일 바빴던 약국에서 땀을 흘리면서 복약 설명과 약을 챙기신 두 분의 약사님, 치과 선생님들, 봉사에 필요한 많은 짐을 일목요연하게 챙기면서 포장하고 사진촬영과 행정적인 일을 해주신 사무처장님과 권 부장님, 소중한 순간을 영상에 담기위해 동행 취재해주신 안동 MBC의 두 분, 간호사와 봉사단원 가족 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이번 봉사활동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이번처럼 해외의료봉사는 보건의료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가 같이 참여하여 단순히 진료뿐만 아니라 강의, 교육, 현지 의사의 연수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의료 발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의사회의 이러한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경상북도 위상과 함께 경북의사회의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캄보디아 국민의 행복한 웃음을 떠올리며 매년 해외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누가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은 것



김 우 석 원장
오거리사랑요양병원(포항)

캄보디아, 메콩강의 흐름을 받아 앙코르 와트 문명의 꽃을 피운 곳,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다가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 메콩강을 따라 풍부한 수자원과 옥토를 간직한 곳, 하지만 킬링필드라 불리는, 자국인구의 1/5이 살해당하는 지구상의 유래없는 살육의 아픔을 머금은 곳.

1인당 GDP가 1,015불, 우리나라 GDP의 5%도 채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로 가는 의료봉사팀에 합류하면서 주워들은 짧은 상식이다. 이렇듯 캄보디아는 나에게 있어 처음에는 낯설디 낯선 땅이었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여 걸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다. 대구에서 출발 할 때부터 편의상 1호차, 2호차 팀으로 나누어 버스에 탔고,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2호차 팀장을 맡아 회원들의 탑승유무를 알아보랴, 봉사에 쓸 봉사물품 박스를 챙기랴 정신이 없어 프놈펜의 첫 인상은 아련하기만 하다.

단지 의료물품을 통관할 때 통관을 하느니 못하느니, 잠시 실랑이가 있었던 에피소드만이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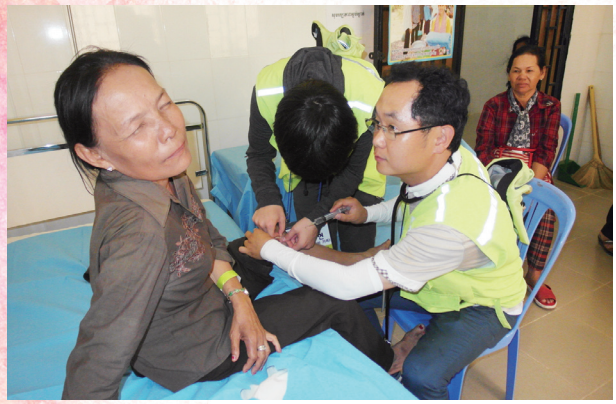
어찌되었던 부산한 첫 밤이 지나고 다음날 프놈펜 인근의 왕립군의과학연구소로 향했다. 차창가로 보이는 프놈펜의 거리는 수많은 오토바이와 무질서속의 교통체증으로 번잡했지만, 생각보다 가난에 찌든 거리는 아니었다. 새로이 생기는 건물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 보려는 생동감을 엿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가난한 나라의 실상이 펼쳐져 있다고 가이드가 말해 주었다.

잘 곳 먹을 곳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고달픈 삶들, 그리고 병이 걸려도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아 사망과 수인성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로 평균연령이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는 곳, 그 곳이 건물 뒤편에 자리 잡은 캄보디아였다.

1시간여를 달려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 도착하고, 첫 날의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전은 짐을 옮기고 진료소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던 1차 봉사 때와는 달리, 그 때의 경험이 거름이 되어 이번 봉사는 오전에만 200여명이 넘는 환자를 보았다.

예상치 못한 환자들이 몰려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보다 일찍 진료부가 갖추어졌고, 작년에 일어났던 착오들도 미리 준비한 덕분에 별탈없이 진행되어 많은 환자들을 차질 없이 볼 수 있었다.

'이런게 저력인가' 묘한 자부심이 들었다. 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책임감이랄까, 1차 의료봉사때 식중독을 겪었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회원들의 건강에 많은 신



경이 쓰였다. 점심식사때도 물을 가려서 먹도록 하고, 음식도 쉽게 상하지 않게 점심시간 직전에 음식을 끓이도록 해서인지 봉사가 끝날때까지 설사 때문에 고생한 회원이 없었던 것이 큰 다행이었다.

환자들은 작년보다 훨씬 많아 첫 날에만 500여명을 진료하였다. 하지만 환자 혈압체크에서부터 진찰, 약국까지 진행도 매끄러웠고 가족회원들의 협조도 잘되어 무난한 첫 날을 보낸 것 같다.

등에 재발된 주먹만한 지방종을 가진 환자를 수술하였는데, 수술 후 치료받을 형편이 안되어 술후 드레싱도 하기 힘들다는 말에는 조금 황당함을 느꼈다. 수술을 하면 합병증은 무조건 없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수술이 끝나고 웃는 환자의 모습에 그런 걱정은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f/u에 환자의 술후 상태가 좋아 안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둘째 날 오후는 의과대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더위에도 긴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이채로웠다. 강의시간 내내 집중하는 또렷한 눈망울과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에서 캄보디아의 미래가 보였다.

진료가 모두 끝나고 어스름한 저녁노을이 물들 때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떠드는 젊은이들이 보였다. 우리 봉사팀의 한국 대학생들과 캄보디아 의대생들이었다. 이메일주소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지구촌 한가족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누가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진료를 보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본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의료봉사팀이 왔을 때 진료를 보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소를 물어서 적어갔는데, 혹시 아이의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4시간이 걸려 찾아온 것이다. 다른 방도가 없어 간단한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였다.

안과 선생님은 백내장이 심하여 실명상태에 가까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 심한 백내장은 우리나라에는 미리 수술을 해 버리므로 거의 볼 수가 없지만 캄보디아에는 많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의 경우는 봉사가 눈을 뜨는 정도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 봉사에서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2차 해외의료봉사는 큰 사고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는 점과, 구충제 투약을 비롯한 질환예방과 수술, 위내시경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의대생을 위한 강의 등 많은 것을 이룬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던 2차 해외의료봉사 그렇지만 가슴한편에 간직한 숙제는 앞으로의 이어지는 봉사활동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염 도 섭 원장
서울치과의원(청도)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시행일자 2014년 4월 7일자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공문서 내용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 봉사단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오는 2014년 4월 25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국가는 캄보디아, 방문일자는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되어 있었다. "7월 말에 가는구나! 음~ 보자, 시간이 꽤 남았네..."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뒷전으로 미뤄 두었었다.

하지만 한번 뇌리에 들어온 '의료봉사라'는 단어는 계속 머리 속을 맴돌고 있었는지 불현 듯 꼭 한번 가봐야지 하는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 내었다. 의료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비의료인 신분의 학창시절 꿈꿔왔던 일이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실 말이 의료봉사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막연한 동경 그 대상이었다. 어떤 선배는 자식들을 데리고 몽골이네 네팔이네 인도네 하면서 의료봉사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재능기부(Pro Bono) 같은 베풀어야 하는 의무감 등으로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었다.

일단 신청을 해보자! 처음 해보는 도전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체험 같기도 한 국내 의료봉사도 아닌 해외의료봉사!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는 묘한 느낌이 일었다. 우선 6월 21일 있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전체 의료진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자며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회의장소인 대구시의사회관으로 향했다. 사실 신청한 치과의사가 나를 포함 세 명이었는데 경주에 개원하고 있는 경북치과의사회 안영두 부회장과 예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황화섭 원장이 그들이다. 처음 가 본 대구시의사회관, 작년에 제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훌륭히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과 장유석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일단 경북치과의사회 총무이사로서 경북치과의를 대표해서 왔노라고 거창하게 인사를 하고 참석한 여러 선생님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참으로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작년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꼼꼼하게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대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같으면 아주 훌륭하게 해외의료봉사 다녀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준비부터가 만만치가 않았다. 그쪽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만 알았지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거즈, 핀셋 하나에서 재료, 심지어 유닛체어(unit-chair)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치과의원을 그대로 그곳 캄보디아로 옮겨야 되는 실정이니 말이다. 정말 막막했다. 작년에 의료봉사를 다녀 온, 칠곡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문해석 원장님께 전화도 해보고, 다른 지역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던 지인에게 물어도 보

고 또 치과재료상과 상의도 해보고, 사무국에 수차례 전화도 해보고, 이래저래 알아보니 차츰차츰 가닥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일단 접수한 첩보에 의하면 진료실 2개에 유닛체어가 2개 있고 심지어 파노라마 X-레이 촬영기까지 있다고 한다. 사정이 꼭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쪽 사정에 맞춰 기구와 재료도 준비하고 치과의사가 세 명이니 이에 맞게 역할 분담도 하고 어디까지 진료할지 진료 영역도 정하는 등등 나름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2주 전에 있었던 최종점검을 위한 전체의료진 2차 회의가 지나고 나서도 이동식 유닛체어(portable unit-chair)를 가지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했고 결국에는 간이의자와 조명, 포터블 스케일러(portable scaler)는 가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스케일러는 정말 잘 가져 갔고 포터블 유닛체어도 가지고 갔어야 했다는 것을 현지에 도착해서야 알았다. 평소 진료시 늘 있는 유닛체어, 유닛체어 하면 당연히 핸드피스(handpiece)와 스케일러는 기본이고 석션(suction) 또한 기본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만다. 아니 제대로 진료할 수가 없다. 공기와 햇빛이 늘 가까이 있기에 당연하다고만 여기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없을 때 비로소 참으로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안다. 핸드피스와 석션, 스케일러 등이 치과의사에겐 바로 공기와 햇빛인 샘이다.

7월 22일! 드디어 출발의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짐을 챙겨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 민성이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으로 향했다. 봉사단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쓴 봉사단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기투합이라도 하듯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40여 분간 진행된 출정식을 마치고 2대의 버스로 나눠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출~발!

비행기를 타 본 지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의료봉사단을 위한 항공사측의 특별 배려인지 최신 기종의 비행기라는 느낌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들었다. 좌석마다 LCD 모니터가 있었고, 개인별 취향에 따라 영화, 음악, 뉴스, 기타 오락 거리 등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했다. 저녁 비행기였으므로 석식이 제공되었는데 오랜만에 맛본 기내식이라 그런지 맛은 꽤 좋았다. 배를 채우고 입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한 후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상에 들어갔다. 옆에 앉은 아들 녀석도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나름 비행기 여행을 즐기는 듯했다. 최신 영화로 두 편을 감상하고 나니 비행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고 있었다. 출발할 때 인천 공항에 비가 내렸는데 프놈펜 공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금이 우기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날이 좋았던 적이 근래 없었단다. 복 받은 의료봉사단이라는 말을 가이드로 나온 대구출신의 프놈펜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몇 가지 인사말 등 캄보디아 말과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듣는 동안 우리가 탄 버스는 숙소에 도착하였다. 짐을 풀고 씻고 나니 잠이 스르르 몰려왔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밤이 늦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내일부터 바로 의료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주위에 약간의 긴장감이 맴도는 것 같았다. 내일은 진짜 즐거운 날이 되길 바라며 캄보디아에서의 첫 날밤 잠을 청했다.

01

02

01 해외의료봉사에 참가한 치과가족 – 경북도청에서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마치고 반용석 경북치과의사회장님과 함께 한 기념사진

02 최신 기종의 대한항공 좌석 – 개인별로 LCD 모니터가 있고, 취향에 맞게 영화, 음악, 뉴스 등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있다. 캄보디아를 오가는 동안 최신영화를 3편이나 감상하였기에 태풍의 영향으로 기체가 흔들려도 비행기 여행이 힘들지 않았다.

왕립군의과학연구소(Health science institute of Royal cambodian army forces)가 의료봉사단이 진료를 하는 장소다. 진료 첫 날이라 준비를 해야 하므로 아침 일찍 서둘러 그곳에 갔다.

우선 치과치료를 해야 하는 진료실을 둘러보니 전해 들었던 대로 치과진료실이 2개에 유닛체어가 3대가 있었고, 파노라마 X-레이 촬영기까지 있었다. 특히나 1대는 작년 의료봉사때 경북의사회에서 기증한 프랑스제 새 유닛체어였다. 말로만 듣던 열악한 상태는 아닌 듯했다. 처음 예상하고 작성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는 느낌이었다. 막~ 흥분이 되었다. 이제 뭐 환자들이 팍!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 그러나 이런 만족감도 잠시, 유닛체어를 켜고 작동시켜 보는 순간 모든 게 새까맣게 변하고 머릿 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제대로 사용을 안해서 그런지 새 체어인데도 핸드피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래저래 뚝딱뚝딱 해보니 작동이 되는 것이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아휴~~ 하고 한숨 돌리고 옆방의 진료실로 가보았다. 옆방 진료실에는 2대의 유닛체어가 있었는데 더 가관이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름만 유닛체어지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체어가 아니었다. 요즘 이런 유닛체어를 사용하는 치과는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은, 박물관에나 가 있을 법한 한마디로 골동품 수준이었다. 치아를 치료할 때 쓰는 핸드피스는 물이 나오지 않고, 환자의 입 안에 고인 물을 빨아내는 석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핸드피스에서 물이 안나오고 석션도 안되면 어떻게 치료를 한단 말인가? 시나리오 급수정이 필요했다. 새 체어에서 치아우식증을 제거한 후 옆방으로 환자를 보내면 옆방에서 충전하는 식으로 진료 체계를 바꾸고, 유닛체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방에서는 발치를 하거나, 가지고 온 포터블 스케일러로 치주치료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여 환자 진료할 준비는 완료되었다.

한참을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노라니 금방 점심시간이라는 전갈이 왔다. 이층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땀 흘리고 난 후 먹는 점심밥이 정말 꿀맛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기에는 그렇게 풍성한 메뉴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보람있는 일을 한 후라 그런지 뿌듯함과 더불어 행복감 때문인지 진수성찬 다름 아니었다. 잠깐의 휴식 후 오후 진료에 접어들었다. 이젠 손에 익어 제법 환자 보는 속도도 붙었고 약간의 여유마저 생겼다. 그러고 보니 진료실 벽에 에어콘도 달려 있었고 치과관련 액자도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루한 차림의 대기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작은 키에 손톱과 치아는 하얗고, 머리카락은 검고, 피부는 대체로 우리보다 검었다. 하지만 다들 순수한 얼굴에 착해보였다. 가난하여 못먹고 못입고 못살지만 욕심없는 표정, 꾸밈없는 순진무구(純眞無垢) 그자체였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저절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유발되는 꼭 그런 상황이었다. 나쁜 마음이라고는 전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았다.

1960~70년대 대한민국 수준이라 하던데 아마 그때면 내가 태어나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그 당시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어렴풋한 생각에 나도 이런 모습으로 학교에 다녔던 것 같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중학교때 집에 전화가 들어왔으니 말이다. 이 사람들의 뒷모습이 옛날의 나의 부모님 뒷모습이라 생각하니 왠지 가슴 한 켠이 묵직해져 왔다.

현지 개원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는데 의사소통의 한계로 많은

01

02

01 나를 도와 어시스트한다고 고생한 둘째 아들 민성이 –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으리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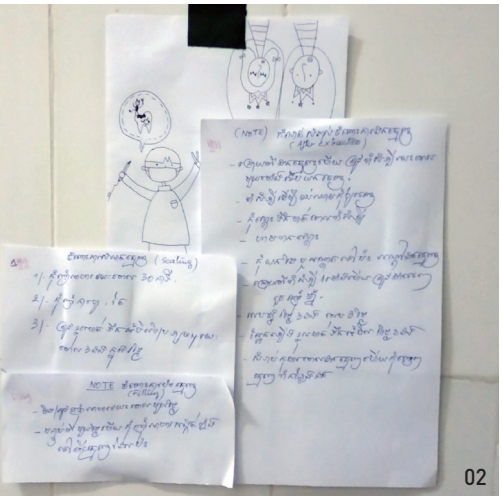
02 오전 진료가 끝나고 갖는 점심식사 시간 – 땀 흘린 자만이 진정 맛나는 성찬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봉사와 땀이 식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현재 치아상태와 치아관리에 대해 얘기해줄 수 없어 참으로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온다면 몇 마디 캄보디아 말을 배워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후 5시, 마치는 시간이 되니 몸이 지쳐왔다. 하지만 마음은 진실로 가볍고 홀가분했다. 이렇게 하루는 보람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튿날 왕립군의과학연구소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접수를 받는 대기장소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 진짜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마음이 훨씬 행복해짐을 느꼈다. 원래 '환자가 많으면 몸이 피곤하고, 환자가 없으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환자가 많으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 몸이 피곤한 줄 모른다.' 이렇게 이틀 동안의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마무리 되어갔다.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부족한 게 많음을 느꼈고,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베푸는 즐거움과 나누는 행복감을 맛보았고, 봉사단 단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도 느끼며,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요로와짐에 미소가 절로 난다. 모두 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운다는 우스갯말이 있다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작은 아들 민성이와 함께 지낸 4박 6일 동안의 여정은 부자(父子)간 많은 얘기도 나누고, 도타운 정을 느끼게 해주어서 좋았다. 옆에서 어시스트하느라 수고해준 민성이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라본다.

'깊은 산 무성한 숲 속에 한 떨기 난초가 꽃을 피워 종일 그윽한 향기를 피우고 있지만 난초 스스로는 향기를 내고 있는 줄도 모른다.' 내 스스로가 이런 난초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 많은 의료인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01



02

01 통역을 해주었던 캄보디아 의과대학생 – 영어를 매개로 하여 환자와 의사소통하였으나 많은 한계가 있었다. 캄보디아어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했다.

02 스케일링과 발치 후 주의사항 – 캄보디아어로 종이에 써서 치과실 벽에 붙여두고 환자에게 읽어 보게 하였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인물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다음 의료봉사때는 필히 준비해야겠다.

03 의료봉사단 치과팀 – 왕립군의과학연구소 의료봉사 진료동 앞에서

03

56명의 뜨거웠던 마음, 아름답고도 따뜻했던 캄보디아 의료봉사

고 영 이 심사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요즘 우리나라의 소득과 의식수준도 높아지면서 공익적 가치제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여 함께 성장 발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7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펼치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어떤 역할로 봉사를 도울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떠나는 전날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사회 주관하에 경상북도 각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프놈펜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각 분야별 전문 진료인력과 가족 등 행정지원 인력으로 56명의 봉사단원이 구성되었다. 8개 진료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해 현지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모습이 마치 캄보디아 최고의 종합병원처럼 보였다.

이상민 영덕경대안과의원 원장님 가족들과 나는 안과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막연하게 안과는 환자가 적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첫날부터 수많은 캄보디아 현지 환자들이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력검사, 안과진료 후 돋보기도 받아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환자들이 진료실과 복도까지 줄을 서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을 보자 가슴이 뭉클하여 한분한분 소중하게 상담해드려야겠다 다짐을 하며 밝은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였다.

안과 원장님은 통역 봉사자와 함께 검사와 진료를, 나와 초등학생인 원장님 아들 창희는 주로 시력검사와 환자 줄세우기, 기본 상담, 차트 접수, 돋보기(400개) 나눠주기에 주력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어두운 표정과 지친 얼굴로 "눈이 아프고,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점심식사 시간도 잊은 채 진료에만 전념하셨다. 초등학생 아들 또한 다리가 아프고 숨이 막힐 듯한 날씨에 발바닥에 불이 나고 온몸이 땀과 열기로 힘들었겠지만 내색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기특함과 함께 한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느껴졌다.

봉사단은 한명의 환자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진료기록부가 분실되어 한 아주머니께 상처를 드리게 된 일이 있었다. 우리의 상황 설명과 깊은 사과에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셨는지 눈물까지 보이셔서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과 진료들도 우선적으로 받게 해드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진료 후, 하얀 이를 드러내는 큰 웃음과 함께 내 엉덩이를 툭 치는 여유까지 부리셨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흘린 땀만큼 뿌듯함을 느꼈다. 봉사단원 모두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단순히 약품, 의술, 재능을 그들에게 주고만 온 것이 아님을 고생한 일행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진 따뜻한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격려의 말, 호의의 눈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착한 마음을 나눴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준 이상의 마음의 선물을 받아왔기에 행복한 경험을 준 그들이 도리어 고맙게 느껴지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끝으로, 몇 개월 전부터 의료봉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경북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경상북도”의 뚝심과 위상을 보여주시기를 응원한다. 몸은 고되지만 나에게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 캄보디아 봉사를 마음에 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의료봉사단의 나눔 그리고 행복...

안 영 희 회장
경상북도보건교사회
경산중학교 보건교사

경북의사회 '캄보디아 드림 해외의료봉사단 56명' 행복한 미소 머금으며 떠올려본다.

멋있는 웃음 머금으시며 진두지휘를 하신 의사회 정능수 회장님...

밝은 미소와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봉사단을 이끌어 주신 간호사회 고순희 회장님...

조용한 내재적 카리스마로 봉사단을 이끌기 위해 애쓰신 장유석 단장님...

휴가 대신 가족과 함께 드림 해외의료봉사팀을 이끌어 주신 김재왕, 황석순, 이재흠, 백현우, 문상웅, 김우석, 장재혁, 손성근, 이순영, 이상민, 안영두, 염도섭, 황화섭, 정태균 원장님과 그 가족들...

맑은 미소로 힘든 일정을 묵묵히 담아낸 이필재, 권명화 약국장님...

우리 강력한 꿈의 간호봉사팀 고영이 부장님, 배분희 처장님, 박경숙, 임홍아 선생님...

참으로 멋진 웃음과 감동을 준 21세기 글로벌의 꿈과 희망의 주인공인 중 · 고 · 대학생들...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행정을 도와주신 의사회 박재영 사무처장님, 김두중 국장님과 65개의 노란박스를 넘 꼼꼼하게 탄탄하게 포장하느라 고생하신 권순길 부장님...

친정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봉사단의 고마움을 가슴에 안고 예쁜 통역한 최혜진, 박소희 샘...

행복한 나눔의 의료봉사 현장을 담고자 넘 애쓰신 최종태, 태숙혜 안동 엠비씨 방송팀...

2014년 7월 22일 경북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국가로...', ' 봉사단원 하나 하나가 외교관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여는 세상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우린 인천공항에서 노오란 의료지원품 65개의 박스를 싣고 프놈펜으로 향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이른 아침 의료봉사지인 프놈펜 캄보디아왕립군의과학 연구소로 가는길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통과 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 뚝뚝이, 오토바이,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나아갔다.

8시30분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는 벌써 백여명의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지의 의료 및 경제적인 환경은 우리나라 1970년대와 비슷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부족하고 열악한 의료시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진료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 준비된 진료실에는 먼지가 쌓여져 있고, 진료장비는 참으로 보잘 것 없었다. 진료 환경의 열악함에 놀라움은 뒤로 하고, '경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의 움직이는 종합병원드림팀'은 빠르게 청소와 정비작업을 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 주었다.

소아청소년과를 맡은 이순영 원장님과 남편분인 박상준님, 박수완, 박세익, 정인영 학생과, 박소희씨랑 함께 맑은 눈망울의 예쁜 아이들에게 진료, 투약, 치료 방향, 개인위생교육과 영양제, 학용품, 사탕을 한 아름 들려주니 환환 웃음으로 엄마와 함께 두손 모아 "어꾼!"하며 나가는 모습에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반면에 가슴 먹먹한 슬픔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4시간여를 버스를 타고 명의를 찾아 온 선천성 모반이 몸을 덮고 있는 아이의 수술을 원하는 엄마의 애절한 눈빛...

막대사탕 하나도 들 수 없는 청색증의 선천성 심장병 아이의 수술을 원하는 엄마의 간절한 눈빛...

원장님과 우린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뒤돌아 눈물만 훔쳤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선물을 가득 챙겨 주는 것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할 뿐이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의 힘든 봉사활동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원 모두 미소 띈 얼굴로 '가족처럼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존경을 넘어 예술이었다! 학습연구년을 맞아 이런 멋진 '드림 경북해외의료봉사단'에 참가하여 '나눔 그리고 행복'에 취해 마음이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따뜻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신 경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2015년에는 소외된 의료지역에 지속적으로 더 힘찬 인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이 좋아져 아픈 아이로 인해 엄마의 시린 가슴이 따뜻하고 고 행복해지기를...

특히 막대사탕조차 들지 못한 청색증 그 아이가 수술해서 엄마와 함께 맘껏 뛰어 놀기를...

그리고 우리가 돌보았던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두 손 모아 "어쿤"

박 경 숙 간호사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의사회에서 주최한 제2회 해외의료봉사 활동이 2014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캄보다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이라는 구호아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출국 전 경북도청에 모두 집결하여 출정식을 가졌고 여러 단체에서 나와 떠나는 우리들에게 격려와 함께 많은 힘을 실어주는 한편, 봉사활동기간 동안 입을 유니폼을 입고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촬영도 하였다.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H동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 우리들의 마음도 바빠졌다. 빨리 진료할 수 있도록 봉사를 떠나기 전 한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파트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짧은시간에 진료실을 꾸몄다. 각 진료실마다 대기환자들로 넘쳤고 원장님들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의과대학생들의 도움으로 캄보디아어와 영어로 말을 하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현지통역사들도 큰 도움을 주어 진료에 힘이 되었다. 나역시 내과파트에서 혈당체크도 업무 중 하나였는데 현지 남자간호사 학생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열심히 혈당체크를 해주었다.

봉사기간 동안 힘들었던 점은 더운 날씨가 아니라 2층 진료실에서 1층으로 환자를 모시고 약국 또는 다른 진료실로 갈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힘들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다른 봉사자들을 계단에서 만나면 서로 화이팅을 외치며 힘을 북돋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료인의 가족들도 많이 참여 하였는데 각자의 맡은 업무를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다.

봉사기간 동안 2,850명을 진료하였는데 모두들 힘들다거나 피곤함을 표현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묵묵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요즘 아이들은 나약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진료를 기다리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대기 순서가 길고 앉을 의자도 부족했는데 얼굴에 짜증하나 없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진료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두 손을 모아서 "어쿤"이라는 감사의 말을 하고 돌아갔다.

진료중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 내과파트에서 첫날 봉사일정에서 젊은 30대 초반의 여자와 아이가 들어왔는데 여자 환자는 많이 힘들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보였다. 기본체크에서 혈당이 high로 나와서 바로 침대에 눕혀서 수액을 주사하였다. 수액주사 후 3시간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옆에서 아들은 엄마발을 마사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애처롭고 대견하고 아이의 큰 눈망울이 착하면서 선해보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모자의 모습이 아른거리며 부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봉사기간동안 봉사단원 전체가 건강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옴에 감사를 드리고, 좋은 날씨를 주심에 또한 감사하다.

현지주민들은 귀가 먹먹하거나 아프다, 어지럽다 등의 호소와 여성분들은 산부인과 쪽으로 증상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다음 봉사활동에는 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진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진의료와 봉사단원의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 병원진료에 소외된 현지주민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바램이며 이 또한 경북의사회에서 큰 역활을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나 역시 이번 활동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의사가 되어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한다

안 중 환
안치과의원(경주)
안영두 원장 자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에 따라 내과, 외과, 치과 등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형과 나도 의대생이라 함께 가서 캄보디아의 의료상태도 보고 봉사도 할 겸 치과의사인 아빠와 형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하기에 진료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릴적 꿈이 의사가 되어 가족과 함께 해외의료봉사를 꼭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16명과 간호사 7명, 약사 2명, 행정 3명, 캄보디아에서 통역을 해주실 결혼이민 여성 2명과 안동MBC 2명, 함께 가는 가족들을 합쳐 총 56명이 7월 22일부터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에 모여서 출정식을 했다. 도지사, 도 경찰청장, 라이온스 총재, 적십자 총재, 의사회 회장, 간호사 회장 등 내빈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사진도 찍었다. 출정식이 끝난 후 전세버스 2대에 나눠 인천공항으로 이동을 했다. 캄보디아에는 의료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료봉사단이 한국에서 가져가야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봉사단원들의 개인 짐을 최소화하여 기내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각자 이름으로는 비행기 화물편으로 의료물품 한 박스씩을 보내야 했다. 단체로 이동하고 각자 비행기에 들고 타는 짐이 많아서 비행기는 이륙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어색하여 그냥 인사정도만 하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 5시간의 비행 끝에 Phnom Penh 공항에 도

착했으나 시간이 늦어 얼른 짐을 가지고 예약되어 있는 Phnom Penh 호텔에 가서 잠을 청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고 7시 30분까지 버스에 탑승했다. 우리가 봉사를 할 장소인 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Health science institute of R.C.A.F)에 가는 도중 의료기기들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캄보디아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캄보디아에서는 오전 9시 전에는 화물차가 다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상식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차를 잡고는 용돈을 달라고 하고 차가 사람을 쳐도 그냥 한번 보고 간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70년대랑 비슷하다고 한다. 내가 이런 상황에 살면 답답하고 억울해서 못 살 것 같다. 봉사 할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직 화물차가 도착하지 않아 준비하기에 앞서 미리 단체사진을 찍고 진료 장소인 H동 1,2층에 내과, 외과, 안과, X ray실, 초음파실 등 안내판을 붙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드디어 화물차가 진료장소에 도착해서 내시경장비, X-ray, 초음파 기계들을 설치했다.

나는 내과에 배정되어 2층에서 일을 도왔는데 침대 3개와 책상 3개를 옮겨 진료장소를 만들어 진료를 시작했다. 통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학생들과 Midwife 2명이 같이 영어로 통역을 도왔다. 나는 환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밖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의 줄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왔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교육열이 대단하여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환자들을 만나니 전혀 말이 통하질 않았다. 오전진료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너무 많은 환자로 엄청 바빴다. 처음에 환자들이 줄도 안서고 계속 진료실 밖에서 먼저 들어와 질서가 없었으나 같이 일하던 간호사님이 계속 줄서라고 한국말로 외쳤지만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body language로 줄을 서라고 하니까 조금씩 질서가 잡혔다. 그렇게 처음 들어와서는 BS(혈당) 체크를 하고 3명의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나와 내과 황석순 선생님의 아들인 황동준과 함께 다음으로 갈 곳이 어딘지(안과, 외과, x-ray, 초음파, 약국 등)를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렸다. 정말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는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얼른 가서 먹고 바로 돌아와 접수가 시작하기도 전에 내과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시작했다.

1층에 약국, 외과, 초음파, x-ray, 안과가 있어서 안내하러 계속 왔다갔다 하기를 반복해야 했다. 약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질서가 잡히지가 않았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즉석에서 번호표를 만들어서 나누어줬다. 나의 형은 외과에 배정되어 있다가 약국에 사람이 모자란다는 호출에 따라 약국에서 일을 도왔다. 약국 갈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났다. 오랜 시간동안 쉬지 않고 진료를 계속 하다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지쳐서 5분씩 쉬면서 했다. 오후 3시쯤 되니 환자가 줄어 쉴 시간도 생기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눈만 마주치고 웃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생겨 캄보디아 의대생 4학년 친구와도 친해지고 midwife인 학생 2명과도 친해졌다. 의대 다니는 학생은 영어를 상당히 잘 했는데 midwife 2명은 그만큼 잘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짧은 영어로 겨우겨우 의사소통하면서 조금씩 친해졌다. 같이 고생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진 것 같았다.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고 5시에 진료를 마감할 계획이었다. 내과에 꼬마를 데리고 왔던 아저씨를 x-ray실로 안내해 드렸다가 내과에 와서 진료를 하고 다시 소아과로 보내드렸는데 아저씨가 영어를 잘 하셔서 친해졌다. 그래서 내과 진료가 다 끝났는데도 소아과에 데려다 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있었다. 아기한테도 계속 말을 걸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자꾸 아빠한테 가거나 다른 데로 갔다. 아저씨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다. 2010년까지 영어선생님을 하다가 지금은 캄보디아어를 가르친다고 했다. 그리고 2시간 30분을 달려서 병원에 온 것이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일하던 캄보디아 친구가 밖에 나가서 과일 먹자고 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처음 보는 간식들을 먹었다. 그리고 진료가 끝날 때쯤 되어 다시 소아과로 가서 아저씨하고 꼬마를 데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다. 꼬마도 이제 마음을 열었는지 갈 때 즈음 되니 인사도 건넸다. 가기 전 입구에서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고 하고 꼬마도 손을 흔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다. 봉사가 이렇게 재밌고 뿌듯한 일인지 사실 잘 알지 못했다.

첫째날 진료가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수끼를 먹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서로 인사도 하고 하루 진료를 하면서 부족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과 좋았던 점들을 얘기했다. 대부분 처음 만나서 리허설도 없이 시작했는데 팀워크도 잘 맞고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했다. 올해가 캄보디아에 해외봉사 온 것이 2회째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을 봤고 더욱 체계적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첫째날 하루에만 약 500명의 환자들을 보았다. 아쉬웠던 점에는 역시 통역 문제가 많았다. 의사 수만큼 통역이 없어서 힘든 점이 많았다. 다음날에는 통역에 신경을 많이 쓰자고 하면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아빠, 형과 같이 호텔에서 타이 마사지를 받았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빨리 잠을 청하였다.

7월 24일 목요일, 역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 도착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병원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티비에서 가수들 콘서트를 기다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밖에서 좀 더 있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이 바로 2층 내과 진료실로 올라가서 준비를 했다. 어제 하루종일 같이 일했던 친구와도 인사를 하고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과도 인사를 했다. 어제보다 많이 친해져서 농담도 하면서 재미있게 준비를 했다. 정식으로 환자들을 받기 전에 먼저 내시경을 해야하는 환자들 10명에게 먼저 내시경을 했다. 내가 내과에서 무전을 갖고 있어서 MBC를 불러서 내시경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도록 했다. 무전을 갖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다보니 MBC PD님과도 친해지고 카메라 감독님하고도 친해졌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찍힌 것 같다. 내시경 하는 장면을 구경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의사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였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의대생인 걸 알고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의대 4학년 학생도 나에게 영어로 이 환자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며 설명해주고 x-ray 찍은 사

진을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도 해주었다. 환자들을 위해 1,2층을 수백번을 왕복했지만 새로운 걸 배울 때면 전혀 힘들지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계속 안내하러 왔다갔다 하고 줄 세우기에 바빴다. 병원에 온 환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평소에는 병원을 못 가다가 우리가 봉사와서 내과, 치과, 외과, 안과 등 모든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여기저기 많이 데려다 줘야했다. 내과에 와서 안경을 줄 수 있냐고 묻는 환자도 있었고 한 꼬마아이는 볼 때 부터 날 좋아해서 계속 와서 장난치고 다른 데 다니다가 우연히 보면 달려오고 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같이 웃으면서 장난을 치면서 친해졌고 꼬마 어머니하고도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 놀랐던 것은 캄보디아 현지 학생인데 한국어를 1년정도 배워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MBC에서 인터뷰도 하고 통역으로도 많이 도와주었다. MBC 카메라 감독님도 쉴틈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카메라를 들어봐서 알지만 카메라 감독님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둘째날에는 캄보디아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하러 왔다.

캄보디아 촬영팀이 와서 회장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의사선생님들과도 인터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다음날 저녁에 방송된다고 했다. 둘째날 역시 점심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진료가 시작됐다. 중간에 x-ray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x ray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환자를 못 찾는 일도 있었고, 환자와 소통이 잘 안 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내과 마지막 환자 중 목 부분에 2cm정도 되는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 의사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환자가 들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울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만 하면 바로 나을 것이라고 위로를 했는데 환자가 그걸 듣고 하는 첫 마디가 '얼마냐?'는 것이었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정말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다. 의사 선생님도 너무 불쌍해서 이 환자는 의사들끼리 회의를 해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마지막 환자까지 열심히 진료후 모두 마치게 됐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했던 캄보디아 의대생과 산책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그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갔다. 환영식에서 의사회장님과 왕립군의과학연구소장님 등 몇몇 분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7월 25일 금요일, 봉사 일정은 없었지만 호텔을 이동하게 되어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왔다. 버스를 타고 어느 해변에 도착하여 10분 정도 배를 타

고 깹이라는 섬에 도착했다. 배가 큰 배는 아니어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렸으나 재미있었다. 섬에 도착해서 10여분을 숲속길을 걸어 섬의 반대편으로 갔다. 이 섬에는 서양인들도 많이 와서 해수욕을 즐긴다고 한다.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다. 다시 뭍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2시간 가량 달려 Thansur bakor highland resort에 도착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피곤했지만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어 리조트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다녔다.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재밌게 놀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

캄보디아에서 마지막 날 아침, 9시까지 모이기로 했지만 8시까지 모이는 사람은 따로 근처에 산책을 간다고 했다. 엄청 피곤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한군데라도 더 보자는 생각으로 쏟아지는 잠을 참고 일어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산책을 갔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일 때 프랑스가 세웠다는 카지노와 성당을 구경했는데 안개가 많이 끼고 건물도 낡고 붉은 이끼가 껴서 스산한 느낌이 났다. 구석에는 뱀도 있었다. 성당과 카지노를 간단히 구경하고 버스를 타고 2시간 산을 내려와서 한식집에 갔다.

한식집이 크고 세련된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비싼 동네라고 했다. 밥을 먹고 원래 계획은 캄보디아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바로 Aeon몰에 갔다. Aeon몰은 2014년 6월 30일에 연 일본 쇼핑몰인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이랑 같았다. 캄보디아에서는 설탕과 후추가 유명하다고 해서 기념품으로 몇 개를 구입했다.

간단한 쇼핑을 마치고 메콩 강에서 크루즈를 타고 저녁을 먹었다. 크루즈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학생들끼리, 봉사단원끼리 모여 얘기를 나누면서 더욱 친해졌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시간되면 보자는 얘기를 하고 배에서 내려서 마지막 스케줄인 발 마사지를 하기 위해 갔다. 약 40명이 예약하고 한꺼번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사지사가 부족해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에서 리드해주시는 분이 계속 사과를 드리고 촉박하게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놀랐던 게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현지 의사분, 나랑 친해졌던 학생, 다른 여러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더 친했던 친구들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무지 반가웠다. 마지막으로 사진도 찍고 배웅을 나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솔직히 가기 전까지는 내과, 외과, 안과 등 여러 군데 구경도 해보면서 분위기도 보고 진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걸 구경할 생각이었는데 그럴 시간은 없었고 정신없이 환자들 데려다 드리고 내과에서만 있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다.

남들은 의사선생님들이 아픈 사람만 봐서 별로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환자들이 웃어주고 고맙다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은 질서가 없지만 참을성은 정말 본받을 만 하다고 생각했다.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뒤에선 그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지도... 누구하나 서로 싸우는 사람이 없었고 노인분이나 기다리기 힘들어 보이는 분이 먼저 가면 그냥 양보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충 알아듣고 교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봉사자들도 모두 행복해하며 이대로 드림팀 꾸려서 봉사나 다니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만큼 손발이 척척 맞았던 봉사활동이었다. 우리 아버지도 한국에서 진료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내가 돈을 내고 하는데도 정말 보람 있다며 내년에도 의료봉사를 함께 가자고 하신다. 나도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캄보디아어를 조금 익혀서 꼭 다시 함께 하고 싶다. 의사가 되어서도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나라가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좋은 친구로 남게 되길…

커 소 피 (최혜진)
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먼저 제 모국인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주신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단원 및 가족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두번째 해외봉사활동을 캄보디아에서 하게 되어 캄보디아 출신인 저로서는 한없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작년보다 굉장히 많아진 환자들을 마치 내 가족을 진료하듯이 성심 성의껏 돌보아 주셨고 또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끝까지 미소로 환자를 대해주시는 단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보다 올해는 특강을 더 많이 열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선진 의료 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주시려고 하는 모습에서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캄보디아 의과 대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캄보디아 의사분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게 되어 많은 기술을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또한 이번 특강에 통역을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많이 기쁩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술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려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의술도 한국처럼 발전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시간이 7년 밖에 되지 않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고국을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의 통역 담당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 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 의사소통에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모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같이하신 선생님들 다시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고 올해 처음 얼굴을 뵙게 된 선생님들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휴가시간을 제 모국을 위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해 주신 봉사 단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캄보디아로 다시 의료 봉사활동을 가신다고 하니 내년에도 같이 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나은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봉사 단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좋은 친구로 남게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본회는 전체 의사회원과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대축제인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7일(토)~18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01

02

춘계종합학술대회

01 춘계종합학술대회 전경
02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회원들

01

02

03

04

05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01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전경
02 의협 최재욱 전 상근부회장의 격려금 전달
03 본회 정능수 회장의 개회사
04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의 축사
05 의협 최재욱 전 상근부회장의 축사

01

02

03

04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01 참석한 회원 및 가족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마술 · 대금 · 현악4중주 공연

02 3행시 및 4행시를 심사중인 심사위원들
(좌부터 김종영 공보이사, 김재왕 · 장유석 부회장)

03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심사중인 이승수 교수

04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입상한 어린이에게 상장 및 트로피 전달

05 3행시 및 4행시에 입상한 회원 및 가족들에게 상품 전달

05

01 행운권 추첨과 함께 시상중인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좌부터)

02 4개 권역별 대표회장에게 격려금 전달

회원 테니스대회

03 테니스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지홍 테니스동호회 회장

04 본회 한형원 부회장이 테니스대회장을 방문하여 격려

05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다함께 기념촬영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에
「한마음, 봉사정신」의 시제에 총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원

봉사정신(이미숙, 영주 신영주내과의원 가족)

봉오리 못다 핀 꽃 가슴에 시려오고
사무친 이 아픔 아물길 멀다 해도
정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발되고 비옷 되어 함께 가는 우리들

차하

한마음(이예빈, 경주 서울내과의원 가족)

한반도 동쪽끝
마음이 머무는 곳
음악이 흐르는 우리 땅 독도

봉사정신(이주택, 구미 누리소아청소년과의원)

봉사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으나
사회에선 돈 밖에 모르는 의사라 하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신념을 뒤흔드는 슬픈 의료현실 이라네

봉사정신(채다원, 경산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 가족)

봉사정신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를 구하자
사랑으로 전세계 어린이를 구원해
정의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신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차상

한마음(강혜빈, 구미 강내과의원 가족)

한번쯤 아빠에게 맛난거를 해줄래요
마요네즈 식빵위에 듬뿍 뿌려 드렸더니
음음음 맛나구나 음음음만 하시네요

봉사정신(최영택, 김천 최영택정신건강의학과의원)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정겹지 않은 곳
있으리오
사천만 우리백성 가족이고 형제인데
정신없이 살다보니 다정한말 잊었구나
신록오월 청명한 바람 잠자는 초심 깨워낸다

참방

한마음(신은희, 경산 장유석외과의원 가족)

한번만 되돌릴 수 없을까요
마음이 미어집니다. 세월호의 천사들
음미하고 되새겨서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겠어요

봉사정신(박지애, 포항 우리연합의원 가족)

봉사와 희생의 큰 뜻으로 세워진 병원
사랑과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찬 진료실
정성과 성실로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
신성하고 거룩한 손길 히포크라테스 정신

한마음(남수현, 영주 남내과의원)

한아름 꽃송이와
마음의 정성을 듬뿍 담아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당신께 바칩니다.
여보 사랑해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주제 : 가족]

대 상 | 김려원
(안동병원 김연우 회원 자녀)

금 상 | 박경진
(경주, 용인내과의원 정유선 회원 자녀)

은 상 | 정유완
(경산중앙병원 정성화 회원 자녀)

장려상 | 엄현준
(영주가톨릭병원 엄동환 회원 자녀)

장려상 | 최준우
(포항, 제일연합의원 최상윤 회원 자녀)

장려상 | 최한나
(문경, 김성연산부인과의원 김성연 회원 손녀)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의사의 날 행사는 매년 '춘계종합학술대회'와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로 다양하게 진행됐었으나, 금년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애도와 더불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노란리본을 가슴에 달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됐다.

201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새로운 의학기술과 최신지견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토)부터 5월 18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등으로 구성된 201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먼저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춘계종합학술대회는 최영환 학술이사의 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최신의학을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첫날 학술대회 연제로는 △2014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엄재웅 계장 ·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진료실에

서 자주 만나는 혈액검사 이상소견(도영록 교수 · 계명의대 내과)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신경철 교수 · 영남의대 내과) △항혈소판제 사용과 기타 혈액순환제의 처방(이장훈 교수 · 경북의전원 내과) △간이식(최동락 교수 · 대구가톨릭의대 외과)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은 △새로 나온 당뇨병치료제의 최신지견(이지현 교수 ·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노인 근육감소증의 평가와 치료(정휘수 교수 · 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근근막통증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전영훈 교수 · 경북의전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에서 중추성 어지럼을 감별하는 검사(정유선 교수 · 동국의대 이비인후과) 등을 비롯해 △가장 쉬운 절세 비과세 저축 △부인암의 발견 및 치료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암 등의 시청각 교육도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으로 토요일 6점, 일요일 6점이 주어졌다.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개최

첫날 학술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진행된 친선의 밤 행사는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본회 정능수 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지난 4월을 정말로 잔인하게 보냈으며, 회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 무색할 정도로 충격의 연속된 나날이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적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담긴 노란 리본의 물결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했으며, 최신 의학지식을 많이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하고 “친선의 밤 행사를 통해 자주 보지 못했던 회원들의 만남과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의협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과 최재욱 상근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의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축사를 대신했다.

내외빈 축사에 이어 친선의 밤 행사는 회원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현악4중주 공연, 마술공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특히 대금연주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라도 하는 듯 구슬픈 연주가 이어져 행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북의학제는 일부만 간소히 진행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도내 4개 권역별 대항전으로 열리는 '경북의학제' 행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고 테니스대회, 어린이그림그리기와 시조 및 3행시로 간소하게 개최되었다.

먼저 테니스대회는 5월 17일(토) 오후 5시, 알천체육공원테니스장에서 20여명이 회원이 참석하여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김성환 · 서수한 선수가 우승을, 윤영묵 · 최진교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한형원 부회장이 참석하여 인사를 건내고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삼행시 및 사행시는 '한마음', '봉사정신'을 시제로 선정하여 6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이미숙 가족(영주, 신영주내과의원 이원욱 회원)이 '봉사정신'를 주제로 작성하여 장원의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는 '가족'을 주제로 40여편이 출품되어 대상에 김려원 어린이(안동병원 김연우 회원의 자녀)가 대상을 차지하여 트로피를 수상하였다.

폐회사에서 정능수 회장은 "조직의 경쟁력은 전적으로 리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스는 뒤에서 '가라'고 호령하지만, 리더는 앞에서 '가자'로 말한다"며, "새로운 의협회장이 선출되면 경북의사회가 의료계의 버팀목이 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도 "모든 회원이 의료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린다"며, "의협회장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귀중한 한표를 부탁드리며, 이번 선거를 통해 모든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폐회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품추첨은 가전제품과 블랙박스 등을 준비하여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모든 행사를 마쳤다.

춘계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 5월 17일(토)

session Ⅰ (좌장 : 황석순 부회장)

- 2014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 엄재웅(경상북도 식품의약과 계장)
- 외래에서 흔히 보는 혈액검사 이상소견
  - 도영록(계명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 천식과 만성폐쇄성질환에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
  - 신경철(영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session Ⅱ (좌장 : 장유석 부회장)

- 취미로 시작한 스쿠버다이빙 10여년
  - 김석곤(인선학문외과의원 원장)
- 가장 쉬운 절세 비과세 저축
  - 신승환(국제재무공인설계사 CFP)
- 항혈소판제 사용과 기타 혈액순환제의 처방
  - 이장훈(경북대 의전원 순환기내과 교수)
-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 최동락(대구가톨릭의대 간이식 · 간담췌외과 교수)

▮ 5월 18일(일)

session Ⅲ (좌장 : 한형원 부회장)

-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암
  - 시청각 교육
- 새로 나온 당뇨병치료제의 최신지견
  - 이지현(대구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 노인 근육감소증의 평가와 치료
  - 정휘수(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session Ⅳ (좌장 : 김광인 대의원회 부의장)

- 근근막통증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
  - 전영훈(경북대 의전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외래에서 중추성 어지럼을 감별하는 검사
  - 정유선(동국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 부인암의 발견 및 치료
  - 시청각 교육

황석순 좌장 / 엄재웅 계장 / 도영록 교수
신경철 교수 / 장유석 좌장 / 김석곤 원장
이장훈 교수 / 최동락 교수
한형원 좌장 / 이지현 교수 / 정휘수 교수
김광인 좌장 / 전영훈 교수 / 정유선 교수

추무진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

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에 추무진 회원이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오후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추 후보는 5,106표(득표율 49.4%)를 얻어 당선됐다. 이로써 추 후보는 대의원회의 의협회장 불신임으로 공석이 된 협회장직에 올라 앞으로 약 10개월 임기동안 의협을 이끌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추 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이 추진한 정책 기조의 발전적 계승을 슬로건으로 앞세우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대정부 투쟁및 협상의 산물인 제2차 의정협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익을 안겨주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는 총 3만 6,083명 유권자(전자투표 대상자 7,842명, 우편투표 대상자 2만8241명) 가운데 우편투표 5,939명(투표율 21.02%), 전자투표에는 4,510명(투표율 57.51%)이 투표를 실시, 전체 총 투표율 28.95%를 나타냈으며, ▲추무진 후보 5,106표(득표율 49.4%) ▲박종훈 후보 3,653표(35.3%) ▲유태욱 후보 1,577표(15.3%)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공약으로는 △원격의료 저지 △영리자법인 저지 △인턴 · 레지던트 · 펠로등에 대해서도 적정급여, 적정 노동시간 준수 △보건소 진료 금지와 기능 재편 △배출 의사 수 조절 △수련환경평가기구 독립 △대의원회 개혁 지원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감독 강화 △불법의료,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인 단속 · 고발체계 마련 △노인정액제 상향조정 △적정수가 기준 마련과 의료인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확립 △초 · 재진료 단일화 및 종별 외래, 입원 진료비 재책정 등을 내세웠다.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의대 졸업(1986년) △서울대 의학과 석사(1992년) △서울대 의학과 박사(1995년) 과정을 거쳤으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9년간 충북의대 부교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순천향의대 부교수를 지냈다. 이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 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제 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자문위원 · 정책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제38대 회장에 당선된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은 6월 19일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등 내빈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에 들어갔다.

〈기사제공 : 의협신문〉

의협회장 후보자 대구 · 경북 합동 설명회 개최

본회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6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구시의사회 손창용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본회 정능수 회장,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본회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과 대구시의사회 유영구 의장,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이 세 후보의 좋은 의견을 요청하는 인사가 있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각 후보자별 약력 소개와 답변 순번을 정한뒤 정견발표에서 세 후보는 저 마다 자신이 의협회장 적임자라고 강변하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후보자들은 앞 다퉈 "내가 의협회장 적임자"라며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참석한 회원들 또한 날카로운 개별 질문을 통해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독도경비대 격려

경상북도의 동쪽 먼 심해선(深海線) 밖의 한 점 신비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를 지난 6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본회 정능수 회장과 장재혁 기획이사, 박재영 사무처장이 초도 방문하고 울릉군보건의료원에 근무중인 손경식 원장과 공보의 회원들, 독도를 수호중인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의사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22곳을 모두 방문하여 지역 회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나 마지막 남은 1곳 울릉군의사회를 방문하기 위해 몇 번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금번을 통해 비로소 방문하게 되었다.

정능수 회장은 첫째날 울릉군보건의료원(원장 손경식)을 방문하여 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울릉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본회도 진료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또한 근무중인 공보의 회원을 만나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바비큐 그릴 셋트(6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현재 12개의 진료과와 2개의 보건지소, 3개의 보건진료소에서 22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100여 명의 의료가족들이 울릉군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최수일 울릉군수와의 간담회에서는 본회와 울릉군보건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이튿날에는 우리 땅, 민족 자긍심의 상징인 독도를 방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격려하였다.

대한민국 진정한 영토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써 목숨걸고 독도 수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이 여름철 모기와 깔따구에 물려 피부질환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본회에서는 홈키파와 모기해충제, 피부염증 치료제, 회충약 등 80여만 원의 구호의약품을 준비하여 독도경비대원의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또한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 · 김신열 부부에게도 항상 건강을 잃지 말고 독도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심사평가원대구지원과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본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간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심평원대구지원에서 준비한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실적과 지표연동관리제의 대상항목과 진료비 지표현황 등에 대해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변경된 고시 안내와 상병전산심사 조정사례,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 등 주요 전반에 대해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본회에서는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 · 장유석 부회장, 문상웅 총무이사, 장재혁 기획이사, 이재흠 재무이사, 이홍우 보험이사, 박재영 사무처장, 권순길 부장과, 심평원 대구지원에서는 강미경 지원장, 박병철 심사위원장, 한정수 운영부장, 고영이 심사부장, 조상현 행정차장, 김철수 전산차장, 정윤자 · 이숙희 심사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고순희)는 지난 6월 24일(화) 경주 현대호텔에서 모유수유 장점 홍보 및 긍정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발대회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최양식 경주시장, 김춘희 새살림봉사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의 내빈, 모유수유 아기 100명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심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아동간호학 교수, 모성간호학교

수, 모유수유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모유수유로 자란 생후 4, 5, 6개월의 아기들의 건강상태, 신체계측, 모유수유 실천 정도, 모유 지식 등 8가지 영역에 대해 실시하여 우수아기를 선발하게 되며, 금년 7회를 맞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장에서는 '아가랑 엄마랑 어울림한마당'을 마련해 임신 · 출산 육아 OX퀴즈, 최강아빠를 찾아라(디스코 경연대회, 눈치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와 영유아 상담 코너, 포토 존 운영, 모자보건관련 홍보부스 운영, 참가자 단체 및 개월별 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로 펼쳐졌다.

경북대 의전원 6.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 참배

본회 정능수 회장은 현충일을 맞아 6월 5일 오전 9시 경북대 의전원 교정에 있는 6 · 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를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날 참배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서장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지용철 경북의대동창회장외 학생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헌화 및 분양, 추도사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북대 의전원 전몰학우 추념비는 6 · 25 전쟁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10명을 기리기 위하여 53춘추회(경북의대 1953년 춘추졸업동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잊지 못할 학우들을 기리는 뜻을 모아 추모의 정을 새기기 위하여 1980년 4월 23일 건립되었다.

건강보험 수급자격 확인 조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동 대상자들에게 비급여 또는 100/100으로 진료비를 전액 수납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본회 또한 제도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시군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괄 배부하여 일선 회원 의료기관의 접수창구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문화실천 범도민 다짐대회' 참석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영천실내체육관에서 '든든한 안전!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문화실천 범도민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짐대회에는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의장, 본회 정능수 회장, 권기선 경북경찰청장, 정일웅 경북교육청부교육감,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이효수 안전문화운동실천 경북도협의회장 및 재난구조단, 해병전우회 등 60여개 단체 3,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40여명의 에코그린 합창단의 합창과 2군작전사 군악대의 화려한 심포닉 공연에 이어 시작된 이날 대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염원 메시지 상영, 경북도 안전정책 추진보고, 결의문 낭독, 안전다짐 퍼포먼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련 특강과 안전홍보대사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후 체육관 화재발생 대피훈련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경북소방본부와 영천보건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소방 · 원전장비 전시, 금연클리닉과 건강검진,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설치, 다양한 볼거리 · 체험거리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경북지사 및 의회의장, 경찰청장 방문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장유석 부회장, 신현수 복주병원장은 지난 8월 26일(화) 오후 5시 30분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를, 오후 5시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을, 8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 경북지방경찰청 권기선 청장을 방문하여 해외의료봉사 출정식에 참석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간담회서는 2014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내용과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향후 해외의료봉사는 경상북도와 5개 보건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하반기 운영회의가 지난 8월 25일(월) 오후 7시 30분, 행복한날에서 개최하고 홍보포스터 배부 및 언론홍보 등 주요경과보고와 더불어 하반기 언론홍보, 사례접수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운영회의는 본회 이우석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토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유석 위원장(본회 부회장)은 인사를 통해 "바쁘신 중에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참석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안건심의 등을 통해 회원과 의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토의사항으로 1)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하반기 언론 홍보는 일간지 1곳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일간지를 접하는 월요일(9/1 또는 9/15 중)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언론사와 협의키로 하였다.

2) 불법행위 사례접수에 대한 심의에서 이OO씨가 제보한 OO의료기관에서 검진시 예방접종 할인건에 대해 심의한 바, 해당기관에는 시정조치를 요청 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보자에게는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3)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의 건은 차기 위원장 선출은 4개 단체에서 윤번제로 진행함에 따라 순서에 의해 2015년도 회기는 개원내과의사회 백효종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키로 하고 차기 전반기 회의는 2015년 3월 2일(월) 개최키로 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안내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4년 10월 19일(일) 오전 9시 30분
2. 산행장소 : 경산 팔공산 갓바위(갓바위주차장 경산방향)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53-6
3. 중식장소 : 청기와집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09, 053-853-2332)

※ 중식은 산행 후 차량으로 이동(주차장에서 5분 거리)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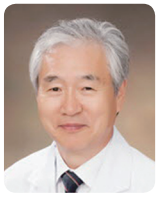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경섭 교수, 국제 인명사전센터(IBC) 세계 100대 의학자 선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가 국제인명사전센터(IBC)의 '2014년 세계 100대 의학자(2014 Top 100 Health Professional)'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인명센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이경섭 교수는 현재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이사장, 전립선 레이저 연구회 회장, 대한 암연구재단 집행위원, 대한비뇨기과학회 평의원 및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뇨기과 전립선 분야 국제 전문 의학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오는 등 비뇨기과학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승호 병원장,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제7대 병원장 취임



구미차병원은 이승호 제7대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장이 지난 9월 22일(월)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승호 병원장)은 경북의대 출신으로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영남대병원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구 · 경북지회장, 영호남산부인과학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부인종양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산부인과 학계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후식 병원장, 포항선린병원 신임 병원장 취임

포항선린병원 성후식 신임 병원장이 지난 8월 5일 취임예배를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성후식 병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1991년부터 선린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포항시의사회 학술이사와 부회장, 본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전영준 교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선정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비인후과 전영준 교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이하 한빛사)에 선정됐다.
'부비동염(축농증)에서의 스테로이드제제' 연구 논문이 알레르기와 면역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알레르기 · 임상면역학회지(JACI)' 5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되는 등 다양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알레르기 비염에서 11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HSD)의 역할과 발현, 부비동염에서의 HSD' 논문을 통해 부비동염 환자에게 약물 치료법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합성이 부신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코 점막에도 합성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해외 주요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우리나라 과학자를 선정하고 국내 연구자와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4년 4월 ~ 8월)

포 항 시

곽 영 균 _ 곽의원
(791-843)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11
T.(054)241-1551 / F.241-1661

민 보 미 _ 씨앤미의원
(791-010)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45-2
T.(054)242-2735 / F.242-2733

정 지 원 _ 엔의원
(791-270) 포항시 북구 천마로 55 우리은행3층
T.(054)255-5800 / F.255-5802

안 동 시

임 영 훈 _ 서울성모마취통증의학과의원
(760-300) 안동시 경북대로 476
T. (054)843-0700 / F.843-0710

건양의료재단 건일병원
(760-220) 안동시 광석3길 13
T. (054)856-8275 / F.856-8276

경 산 시

고 혜 영 _ 수피아소아청소년과의원
(712-080) 경산시 경산로 43 대원빌딩3층
T. (053)817-3120 / F.817-3123

양 근 영 _ 참조은통증의학과의원
(712-120) 경산시 원효로 154 2층
T.(053)818-8275 / F.818-8274

이 현 주 _ 수피아소아청소년과의원
(712-080) 경산시 경산로 43 대원빌딩3층
T. (053)817-3120 / F.817-3123

청 도 군

이 재 욱 _ 삼성마취통증의학과내과의원
(714-802)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
T.(054)373-2700 / F.372-7771

청도병원
(714-805)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198
T. (054)370-9900 / F.372-9906

예 천 군

정 용 원 _ 경북연합의원
(714-802)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31 1층
T. (054)655-0420 / F.0303-3447-0927

+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홈페이지 신규 제작 오픈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그 동안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포항시의사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들간 다양한 정보교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사회에 대한 솔직한 충고와 의견, 발전적인 조언을 담아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오픈하였다. 홈페이지는 의사회소개와 의사회소식, 회원마당, 정보마당 소모임방, 회비납부 안내 등으로 꾸며졌으며, 홈페이지는 http://www.phm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우석 회장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다양한 정보교환 및 학습을 통해 항상 환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사들의 자세를 유지하여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은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제18회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 개최

지난 9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의사회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본회 한형원 부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광만 본회 의장, 신은식 본회 고문 등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의사의 날 행사는 OX퀴즈, 캥거루릴레이, 미니골프, 탁구, 윷놀이로 구성된 명랑운동회와 풍선 서바이벌, 단체줄넘기 등 화합한마당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주시의사회

제11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황)는 지난 6월 1일(일) 경주신라C.C에서 제11회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회원 상호간 친목과 체력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골프대회에는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마 out/in코스 3조씩 나뉘어 경합을 펼친결과 우승은 차동연 교수(동국대학교경주병원)가, 메달리스트는 류기형 교수(동국대학교경주병원), 준우승은 심재철 교수(동국대학교경주병원)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민주평통경주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경주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와 지난 7월 16일(수)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도황 회장과 이길호 부회장, 김진용 기획이사와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이복규 회장, 이무근 수석부회장, 임활 간사, 최대락 청년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 최승옥 · 김은옥 · 최인숙씨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키로 하였다.

안동시의사회

제18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8월 31일(일) 12시 30분, 엠스클럽 의성C.C에서 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는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석곤 안동회장 등 많은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우승은 조일권 회원(안동성소병원 내과)이 차지하는 등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구미시의사회

제20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는 지난 6월 22일 선산C.C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결과 김동욱 회원이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으

며, 메달리스트는 이건호 교수(구미차병원), 준우승은 이형철 병원장(선산제일병원)이 차지했다.

경산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목 야유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는 지난 6월 15일(일) 회원 및 가족,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목 야유회(경북순환테마여행)를 실시했다.

이날 야유회는 08:34분 동대구역을 출발 10:39 점촌역에 도착하여 오미자 와인 복합체험공간, 문경새재(1관문), KBS드라마 세트장, 도자기 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코스로 마련되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화관람 문화행사 개최

지난 7월 15일(화) 회원 및 가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관람을 했다. 이날 문화행사는 미녀와 야수를 관람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포항성모병원

의료진 심혈관중재시술 인증의 등재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김병욱)이 최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로부터 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 심혈관센터 심병주 · 이승재 · 박미연 과장 등 심장내과 전문의 전원도 심혈관중재시술 인증의로 이름을 올렸다.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이 보다 전문화된 의료설비와 전문의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이 되려면 1년간 심혈관 중재시술 100례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인증의는 심혈관 성형술을 2년 동안 150례 이상 해야 한다.

에스포항병원

대통령표창 수상 영예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은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출산친화 및 사내복지에 주력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에스포항병원은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직장보육시설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결혼시 포상금 지급, 셋째아이 출산시 포상금 지급과 함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내 수유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보전제도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 부담을 줄여 복직 후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산재보험 우수의료기관 선정

지난 5월 19일 근로복지공단 201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재의료기관 5천 500여곳 가운데 이뤄낸 쾌거로 평소 24시간 신경외과 전문의를 비롯해 응급수술팀이 대기하며 검사나 수술 등을 추진한 결과다. 이로 인해 환자의 후유증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등 7개 영역을 41개(4개 가점항목 포함) 세부 항목의 분류기준으로 평가한다. 에스포항병원은 이에 따라 상위 5%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의료기관의 영광을 안았다.

캄보디아서 인술 펼쳐

지난 3월 26일부터 5일 동안 캄보디아 쓰레이소폰 씨소폰교회에서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는 해외의료단기선교 활동을 펼쳤다. 취약계층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선교 활동 시작 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조광연 진료부장을 단장으로 김문철 원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북광역치매센터,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개소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은 지난 7월 17일(목),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및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 · 군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치매와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의지와 광역단위의 전문센터 개소의 축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경상북도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3번째로 광역단위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치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시 · 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동병원

17년째 개원기념일에 추도제 지내

안동병원(병원장 김효윤)이 지난 5월 21일(수) 오후 5시부터 2014년 합동추도제를 열었다. 합동추도제는 한해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영면하신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유가족을 초대해 함께 추모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지난 1998년부터 17년째 매년 개원기념일에 맞춰 개최하고 있다. 추도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도사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각 종교단체의 추모의식이 거행되고 의료진과 임직원, 유가족의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10년째 고객간담회 열어

지난 6월 3일 컨벤션홀에서 고객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경영진과 의료진이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고객초청간담회는 1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떡케익을 나누는 등 고객의견청취에 앞서 10주년을 기념했다. 안동병원 고객간담회는 병원이용 고객이 자유롭게 불편 및 불만사항을 말하고 이를 이사장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분야의 40여명 간부가 직접 경청하고 제기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결과를 보고한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은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우극현)와 화순전남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국훈)가 공동으로 개최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워크숍'이 7월 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 사례 ▲화학사고시 응급의료대응 및 처리 사례 ▲화학사고에 대한 의학적 긴급대응 체계 ▲오염사고시 제염절차와 개인보호구 등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불산 피해주민 정신건강증진 교육

불산 가스 누출사고 피해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와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6월 24일(화) 임천리 새마을회관에서 '정신건강증진 집단교육'을 주제로 노래와 영상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루게릭 환자를 돕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동참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비영리기관인 ALS 재단이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자선 모금 운동으로 얼음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다음 캠페인에 동참할 세 명을 지목하면 대상자는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관련 기부를 하게 된다. 박래경 구미병원장은 부천병원 신응진 진료부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릴레이 주자로 지목받았다. 8월 28일(목) 병원내에서 30여 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물세례를 받았고 동참하지 못한 직원들은 성금 기부로 그 뜻을 함께 나눴다. 한편, 이날 이벤트로 모인 성금은 병원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대하여[1)]

편집위원회

1976년 아프리카의 콩고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의 심한,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콩고, 가봉, 아이보리 해안,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자가 있었다. 미국, 이탈리아, 필리핀 등에서 실험 동물의 에볼라열 발생이 있었으며, 영국에서도 실험 도중 바늘에 찔려 에볼라열에 걸린 사례가 있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이 나타나고, 2~3일 후에 인두염, 구토, 설사, 반점상 구진이 생긴다. 1~2일 후에 출혈경향이 나타나며, 간부전, 신부전, 중추신경계 증상, 쇽, 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증(DIC)에 빠져들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증상발생 후 7~10일 사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검사에서는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림프구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인다.

병원체는 RNA 바이러스로 Filoviridae 과(科)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로 지역에 따라 항원성이 다르며, Ebola-Zaire, Ebola-Sudan, and Ebola-Ivory Coast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들이고 Ebola-Reston는 사람에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추측하고 있다.

병원소는 불분명하며, 혈액, 분비물, 장기나 정액 등 체액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직접 전파되며, 병원 감염이 많이 발생하였다. 오염된 주사기와 침에 의해 감염된 환자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회복된 지 7주 후에 정액을 통해 감염된 예도 있다.

주요 증상은 감염 후 수일 이내 고열, 두통, 근육통, 위장 통증, 피로감, 설사, 인후통, 딸꾹질, 발진, 눈의 충혈, 혈성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감염 후 일주일 이내 흉통, 쇼크, 사망, 실명, 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치사율은 50-90%까지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2~21일간이며, 혈액이나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전염력이 있다. 수단에서 환자 보호자의 30%가 감염되었지만, 가정생활 중 접촉한 사람은 대부분 감염되지 않았다.

발생현황은 1976년 수단과 자이레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래 수단, 가봉, 콩고, 우간다 등에서 유행이 발생였으며, 2014년 9월 서아프리카 전체 감염자가 6,555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도 3,091명으로 한달전 감염자 2,100명, 사망자 1,145명에 비해 3배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발병하여 발병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과정을 소개했다.[2)]

①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에볼라 바이러스는 체내에 침투하면 먼저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s)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을 무력화시킨다. 수지상세포는 병원체가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1차 방어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수지상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를 면역세포인 'T세포'에게 알린다. 신호를 받은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 그런데 수지상세포가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체액이나 가검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수단 및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접종은 없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T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지 못한다. T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항체도 형성되지 않는다. 면역시스템이 무력화된 틈을 타 에볼라 바이러스는 빠르게 복제하면서 퍼진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다른 악성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면역세포의 인터페론 생성을 차단한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분자다. 최근 국제학술지 '셀 호스트 앤 마이크로브(Cell Host & Microbe)'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 중 하나인 'VP24'가 면역세포 표면의 수송단백질에 달라붙어 인터페론 전달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②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혈열을 일으키나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집어삼킨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집어삼킨 대식세포는 혈액을 굳게 만드는 단백질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혈관에 피가 굳는 현상인 '혈전'이 생기고, 각종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시작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삼킨 대식세포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도 생성한다. 아산화질소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액 누출을 유발한다. 혈관 손상에 따른 출혈은 에볼라 출혈열의 주요 증상 중 하나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들이 눈이나 코 등을 통한 외출혈 증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③ 에볼라 바이러스는 특정 장기만 공격할까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식세포는 체내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를 분비하는 방식으로 몸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모든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는 장기는 간이다. 또 위장쪽 세포조직이 손상되면 환자는 설사 증상이 심해지고 탈수증에 이른다. 부신(adrenal gland)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생성하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순환부전(circulatory failure)이 일어나고,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

④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사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혈관이 손상되면 혈압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환자는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다.

⑤ 일부 환자들은 죽지 않고 생존하는데 2000년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당시 보고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생존한 환자 대부분이 잘 활동하는 T세포를 많이 갖고 있었다. 또 백혈구 표면의 신호전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자들도 생존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 'sCD40L'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보유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올해 초 발표되기도 했다. 이 단백질은 혈소판에서 생성되며 손상된 혈관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을 활용하면 인체의 자가치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수액제 등을 투여해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진단은 환자검체(조직, 정액, 소변 등)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antigen-capture ELISA로 항원 검출, IgM · IgG-capture ELISA로 항체를 검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유전자를 검출한다.

치료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최근 환자들은 보존적 대증치료를 받고 있다. 예방은 자연 병원소가 알려져 있지 않아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임. 다만,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체액이나 가검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수단 및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접종은 없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바로알기

2) 조선비즈 8월17일자 에볼라는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선을 다해 임무완수 하겠습니다.

김 석 곤 위원장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석학문외과의원(안동)

충성!!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경북위원 김석곤은 의협 대의원회총회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저지 및 의료영리 자법인 저지를 명받았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원격의료저지 관련 투쟁을 위해 의사협회 대의원회 총회결의로 탄생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발족한지 약 5개월 남짓 기간에 총 17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그동안 원격의료저지 관련 토론 및 대책수립과 대정부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평균 3시간이상의 화상토론을 거치면서 의협회관에서 전체모임을 가질 때면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집행부의 비협조 와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에 때론 좌절하기도 했지만 회원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저지 임무에 나선다는 사명감에 모두들 대단한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38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원격의료시범사업 찬성에서 반대로 의협의 공식입장이 전환된 것과 복지부의 6월 시범사업실시를 연기시킨 것,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등과 원격의료의 문제 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향후 입법저지동참 등에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의 역할이 컸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에 실시한 대회원 비대위 설문조사결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반대가 95.2%,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90.6%가 반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휴폐업을 포함한 강경대응에 55.3%가 찬성, 시범사업비협조 등 미온적 대처를 포함하는 대응에는 90.5%가 동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37대 노환규 집행부는 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집행부로 구성된 의료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끌어낸 제1차 의정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와 집행부 단독으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이 포함된 제2차 의정협의안를 이끌어냈으며 3월 10일 파업과 연계된 2차 의정협의안 찬반 설문조사결과 의정협의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을 유보하는 안에 과반수가 넘는 회원들은 찬성을 하였으나 이 결과는 반대할 경우 장기간의 휴진투쟁에 대한 부담으로 회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의 연장으로 지난 5월 30일 김경수 대행집행부는 정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합의했습니다. 38대 추무진 집행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공약을 선거 막판에 내걸었고 이후 정부는 원격모니터링을 원격진료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추

진을 위해 의료계를 압박 중입니다.

정부는 2008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방안연구"와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유헬스 현황과 정책과제" 등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정부 각부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하고 단계별로 원격의료관련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는 오진의 위험성과 국민건강훼손,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장비구입과 원격진료수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상승, 민감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화상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및 스타의사선호로 인한 동네의원의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기관 방문횟수의 감소로 인한 의료기관 채산성악화 등이 있으나 정부는 원격의료도입으로 인한 장기적 의료비용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의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를 우선시하고 공공 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효과를 위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자본 재벌들은 미래신성장동력 관점에서, 대형병원은 악화되는 의료환경에서 돌파구로서 원격의료 시행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원격의료 허용과 정보이용관련법제정, 원격의료책임소재, 원격관리기기의 범위와 급여 등 의료법제도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원격의료관련 수가개발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영리자회사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에 대한 외부투자 및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소유가 본격화 되면 대기업 계열사의 수익모델로 원격의료기기산업육성, 환자정보를 이용한 보험상품개발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마케팅에 원격의료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paramedical의 의료관련 일자리 창출과 대형병원집중화 현상 및 공공기관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IT system의 해외수출 활성화 등이 국내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의료는 대자본에 예속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영리자회사문제의 핵심 축인 헬스커넥터 문제는 서울대와 SK telecom이 51:49의 지분으로 출자한 영리자회사로 서울대가 특수법인이라고 교육부가 인가했으나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성격으로 유권해석하여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소유가 가능하지만 의료법개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하면 현재는 원내 전산망회사인 헬스커넥터는 향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의료영리자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의료서비스는 전체의료서비스체제의 94%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적 관리체계의 통제로 급여범위와 수가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이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국민은 부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 평균수준 이하의 정부의료비부담이 의료서비스향상의 선결과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고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라는 편법으로 의료계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계는 합심하여 총력으로 원격의료를 저지해야 하며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의협집행부와 화합하여 지역투쟁체 구성 및 투쟁로드맵 의 대회원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정치권, 언론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병원 및 지역대학병원들과는 의료체계붕괴가능성을 공동인식 하여 연합하고 전공의 및 봉직의 등과도 연대하여 원격의료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쉼터 그늘에서

박 송 훈 과장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환자 병동(病棟)과 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 여유가 있을 적이면 자주 쉼터를 찾는다. 소나무와 측백나무 몇 그루, 하늘을 가리는 등나무 넝쿨과 잎사귀, 마주하는 화단에는 철따라 피는 꽃이 있다. 병원의 쉼터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과 자원 봉사자, 장례식장의 방문객들에게 만남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 이곳은 환자와 그 가족의 애환과, 병원 방문객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다.

또한 쉼터는 병원 직원과 의료진에 대한 칭찬이나 불만 등, 내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비치는 여론의 거울과 같은 곳이다. 의사나 간호사의 이름을 거명해보라.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옷맵시까지 결정이 난다. 의료진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장소가 아닌 것 같지만 실망할 것은 없다. 세상사,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이 많고,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익숙한 게 당연하지 않는가.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늦은 밤에도 쉼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아크등 아래 어둡고 은밀한 곳을 찾는 젊은이도 있고, 환자를 걱정하며 홀로 독백을 하는 누군가의 힘들고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인의 지난(至難)했던 삶의 이야기로 밤을 지새운다.

오늘 같이 무더운 여름날이면, 쉼터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곤 한다. 고목의 풍성한 그늘은,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오랜 나이와 육중한 무게만큼이나 시원하고 아늑함을 더한다. 쉼터의 편안함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고 일상의 잡다한 생각조차도 사라지게 한다. 그러나 건물 내에서 하루를 보내는 나 같은 사람보다 한여름 땡볕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노무자들에게는, 쉼터가 훨씬 절박한 삶의 피난처이며 휴식의 장소가 된다. 힘든 노동에서의 틈새 여유로, 아마도 그들은 소박한 행복감에 젖기도 하리라.

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기쁨과 슬픔은 모두의 것이 된다. 나무 그늘의 시원한 바람결에서 나는 잠시나마 타인이 아닌 우리의 삶과 희망, 사치스럽지 않은 행복을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소한 행운이나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종종 행복함을 느낀다. 개인마다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그때그때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각자의 감성과 인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이며 경험적이다. 가난한 자의 행운이 부자의 과시적 소비로 느끼는 행복감보다 기쁨의 정도가 못하지 않고, 보통 사람의 불행이 부유층이나 정치 권력가의 추락보다 아픔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감성은 순간적이며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프로이트(Freud, Sigmund)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극도로 억제되어 있던 욕구가 갑자기 충족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날은 없다.', 괴테(J. W. Goethe)의 시의 한 구절이다. 행복한 순간과 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역시 지루해지고 짜증이 나며 결국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다. 불행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행복은 환상이며, 지루한 행복은 절망에 가까운 것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불행은 거울의 양면처럼 동행, 교차적인 것이며,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말을 빌린다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공허한 삶의 자각에서 오는 생(生)의 지루함과 무의미함일 것이다.

치매나 정신병자, 식물인간으로 삶을 유지해가는 환자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일상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그것이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행운의 성취감이든 실패의 좌절감이든 개인의 자존감과 관련된 생명의 가치이다. 불행과 행복은 한 몸체에 자리하는 거울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서로 간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개인의 경험 세계 속에 적절하게 부여된 의미로 자리를 잡는다.

'치유하지 말아야할 아픔이 있다. 그러한 아픔은 불행의 더 큰 아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예방 장치이기 때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말이다. 불행의 경험이 또 다른 아픔의 완충작용을 하고 희망의 길을 열어 나가야 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자. 불행한 사람, 불행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삶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끝없는 좌절감이나 공격적인 분노로 변할 때,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성과 감성이 마비된 무의미한 자아로만 남을 때, 진짜 불행은 거울의 이면에 깊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스스로를 황폐화 시키고 희망과 행복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린다.

쉼터에서도 스마트폰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중년층의 사람들도 그렇다. 한참이나 휴대폰을 보고 문자를 보내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서 떠나 버린다. 나름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겐 휴식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말처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 고통 받는 순간에만 떠올리는 것'이라 해도, 행복에 대한 염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 모든 이들의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이며,
새 삶에 대한 희망은 인간에게 부여된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도 휴대폰이고 대화도 휴대폰이다. 그들은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스마트폰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인터넷만이 살아있는 세상이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그곳에서만 자리하는 듯하다.

요즈음은 아이들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사이버 문화와 함께 개인 문화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스마트폰이다. 버스나 지하철, 열차 속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교회에서까지 어디서나 SNS 대화는 넘쳐난다.

따지고 본다면, 탈집단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행복한 개인을 함부로 비난할 일도 아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접속하여 타인과 감정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역시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의 방법 중 하나가 된다. 단지 쳇창의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 대한 무지와, 선동성에 의한 감성과 지성의 파괴, 그리고 남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중독성만 없다면 말이다.

탈집단화와 개인화, 개인의 행복 추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인권의 시대는 개인의 행복을 집단의 행복에 우선시하여 분명히 구분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지만 서로를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 사회, 공공의 책임과 의무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와 민주주의의의 다수결의 원칙도, 이기적이고 사회 저항적인 개인과 소수의 집단에 의해 공동체적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포퓰리즘 정치권은 이를 부추겨 사회안전망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 시민 사회의 기반은 약해지고 오직 자신의 부와 명성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극단적인 물질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 행복의 잣대가 개인의 도덕성과 정체성마저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손바닥보다 작은 기기(器機)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스마트폰은 개인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준다.

의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다른 직종보다 인적인 관계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환

자의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부부의 문제, 때로는 사회적 이슈들까지, 진정으로 환자의 아픔과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라면 어느 하나도 정서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동정적인 위로 몇 마디로도, 진료실 문을 나서는 환자에게 편안함과 작은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쉼터 그늘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비난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보면서 어쩌다 한 번씩은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곤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 왔을까? 그저 남들처럼 물질적 수입에만 연연하고 방어 진료에만 열중하며, 전문직이라는 권위 같지 않은 틀에 묶여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해 왔을지도 모른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왜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신뢰나 만족감 하나도 제대로 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정적인 관심과 삶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타인의 삶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진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서야 날아오른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 G. W. F.)의 말처럼 삶의 지혜도, 타인에 대한 자각도 예순이 되어서야 바로 서는 듯하다.

점점 삭막해지는 의료 환경과 세태의 변화, 환자만 있고 사람은 없는 정부의 원격의료정책, 가까운 선후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의사와 환자들 간의 거리가 예전보다 더욱 멀어져 가고 있음은 무척이나 염려스러운 일이다. 의사나 병원의 주관심은 물질적인 수입이고, 환자와 보호자가 찾는 것은 의사나 의료진의 기술적인 명성이다. 그러기에 의원이나 병원은 전문 의료적 기술의 홍보에만 열중하고, 환자들은 사소한 병에도 온갖 소문과 인터넷을 뒤진다. 오늘날의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따뜻한 감성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말은 이제는 흘러간 이야기일 뿐인가?

공공 요양병원의 아침 회진 시간에는 나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고, 신체적인 불편함에 의사의 친절함이나 위로의 말 몇 마디도 놓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나에게 전문직은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일반 의료의 학문적인 부족함은 젊은 후배님들에게 배운다. 간혹은 치매 노인들에게 잔소리도 하지만, 연륜의 따뜻한 감성으로 요양 환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서로 간의 인정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 자신만의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인생의 어두운 지평선에 서 있는 힘없고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오늘도 쉼터에 앉아 사람들의 애환과 애증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피곤한 일상에도, 무더운 여름날 등나무 그늘을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처럼 스스로 참고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는 따스함이 있다.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말처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 고통 받는 순간에만 떠올리는 것'이라 해도, 행복에 대한 염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 모든 이들의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이며, 새 삶에 대한 희망은 인간에게 부여된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회원전용 신용카드 제휴사업 & 금융대출 지원사업 안내

우리협회는 2014년 5월 15일 회원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하나SK카드, (주)하나은행과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전용 신용카드 제휴사업〉과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전용 신용카드 제휴사업』과 『금융대출 지원사업』은 의사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회원 금융 복지 서비스사업이므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 전용 신용카드 제휴사업

회원님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카드 3종(프리머스, 빅팟, 스마트DC), 기업(법인)카드 1종 동시 출시

구분	개인카드			기업(법인)카드
카드종류	빅팟	스마트DC	프리머스	마스터 플래티넘
연회비	4천원(국내) 5천원(국내외) (전년도 1천만원 사용시 익년도 면제)	5천원(국내) 7천원(국내외) (전년도 1천만원 사용시 익년도 면제)	10만원(국내외) (전년도 3천만원 사용시 익년도 면제)	11만원(국내외) (1회 이상 사용시 연회비 면제)
특징	-전 가맹점 3개월 무이자 할부 -철도승차권 5% 할인 (KTX포함) -항공권 할인 국제선 7% 국내선 5% -SK주유소 L당 50원 할인 -엔진오일 25,000원 할인(연1회) -기타	-전 결재 1% 할인 (이틀연속 1만원이상 결제시) -전월 이용금액 조건 없이 전가맹점 0.7% 할인 -월 할인한도 제한, 전월 사용실적 제한 없음 -기타	-마일리지 기본적립 ·대한항공 마일당 1,500원 ·아시아나 마일당 1,000원 -마일리지 특별적립 ·레저업종 5마일, 골프장 3마일, 면세점/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2마일 -프리패키지 서비스 ·국내동반자 무료 왕복항공권 ·모바일 면세점 선불카드 교환권 (롯데 면세점, 10만원권) ·모바일 주유권 (SK주유소, 1만원권, 월1매, 연 최대12매) -택시할인10% -기타	-마일리지 적립 ·대한항공 마일당 1,500원 ·연 3만 마일리지 한도 -영화할인 8천원 초과시 3천원 할인 -S-oil 리터당 50원 할인 -기타
기타 서비스	- 하나SK 스마트여행서비스 제공(4개 카드 모두 공통) 국내선 항공권 카드소지자 본인 10%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 성수기연휴 제한 없음 / 예약 마감시 이용 제한 / 동반자 1인까지 가능(전화예약만 가능)/ 발행대행 수수료 면제 전국 20개 지정코드 및 리조트 2박시 1박 무료(성수기, 연휴 제외)(연1회) 전국 100개 펜션 10 ~ 50% 할인(비수기 주중 50%, 주말 30% / 성수기 주중 30%, 주말(10%) 국제선 항공권 할인 or 발권대행 수수료 제외 기타 혜택 다수			

회원 금융 대출 지원 사업

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비고
개원(예정)의	최고 4.8억원	협회의 회원 추천서 추가시 금리 0.5% 추가 감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하여야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하나은행 방문대출시 0.2% 축소적용) 신규 대출 고객에 한하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협회의 회원 추천 대상은 전해년도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함
봉직의	최고 3억원	협회의 회원 추천서 추가시 금리 0.3% 추가 감면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아래) 내에 링크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사이버하나은행」이나 「대한의사협회 하나SK카드 홈페이지」 신청용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회원 전용 신용카드는 전용콜센터 ARS 1599-0860(개통 예정)을 이용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함

문의사항

▶ 대한의사협회 사무국(회원 추천서 관련 문의)
- 회원지원국 사업팀(F : 02-798-0553)/이성민 팀장(T : 02-6350-6555), 김대욱 주임(T : 02-6350-6556)

▶ 하나은행 (하나건강금융플라자 1599-2222) / 하나SK카드 (고객센터 1599-1155)
- 상세 내용 문의는 하나은행 동부이촌동지점 (02-795-1111)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SANOFI

"최초의 발을 딛다!"

Statin을 포함한 ARB

- One Pill, Statin을 포함한 ARB
- 3상 임상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 Powerful Irbesartan, Proven Atorvastatin(CV risk management 1차 치료제)

■ 성분 : 150/1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10mg), 150/2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20mg) ■ 용법용량 :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효능효과 :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환자의 신질환 치료, 심근경색증, 외즙증, 혈관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 등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진보적 우수성을 담아낸 가벼운 몸짓,
우아하게 바람을 가르는 공기역학성,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전자동 에어 서스펜션,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의 주행 능력,
그리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드라이빙을
경험하게 해주는 최적의 기술들까지.

메르세데스-벤츠 C-Class가 풀체인지 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The New C-Class는 모든 세대의 C-Class 중 가장 완벽한 진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The New C-Class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중앙모터스㈜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 시승 및 문의
· 메르세데스-벤츠 대구 전시장 : 053)629-9000
· 메르세데스-벤츠 포항 전시장 : 054)256-9001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중앙모터스㈜

대구 : 전시장(053-629-9000)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37 (대명동) 서비스센터(053-551-3333)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33 (이현동)
포항 : 전시장(054-256-9001) 서비스센터(054-256-9004) 포항시 북구 아호로 5번길 3 (항구동)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 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심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CO_2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2,143cc, 1,625kg, 자동 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심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CO_2배출량 11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